

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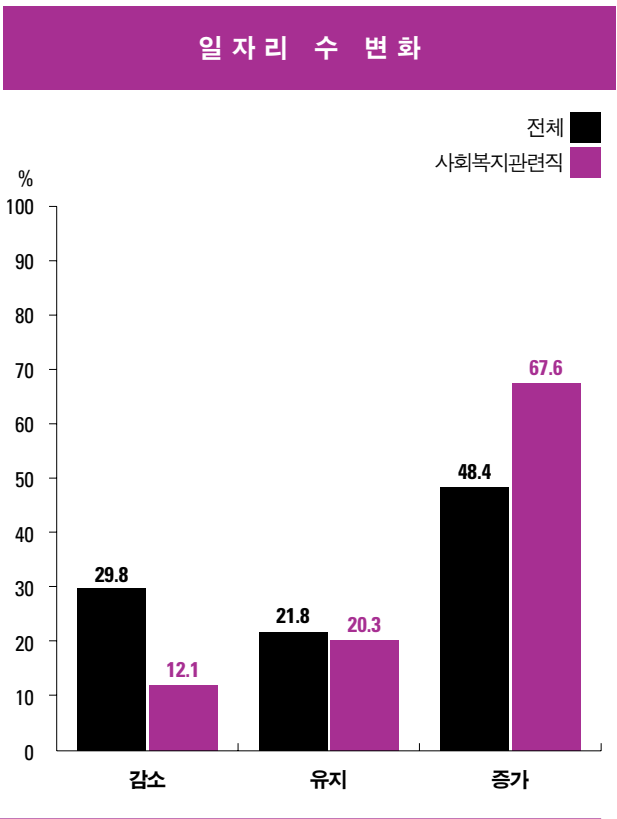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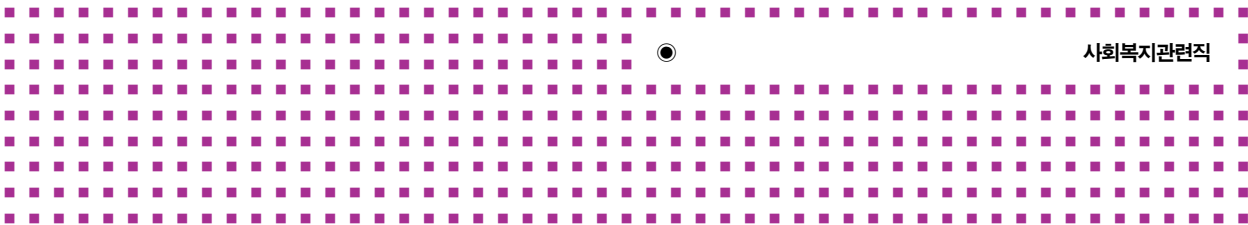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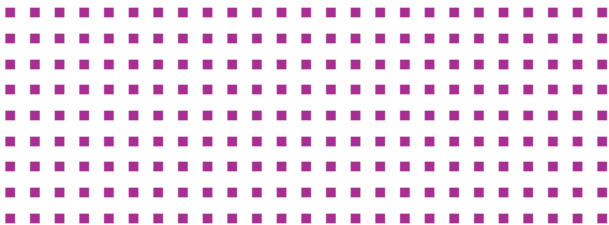
한국 직업 전망

Korea Occupational Outlook
www.work.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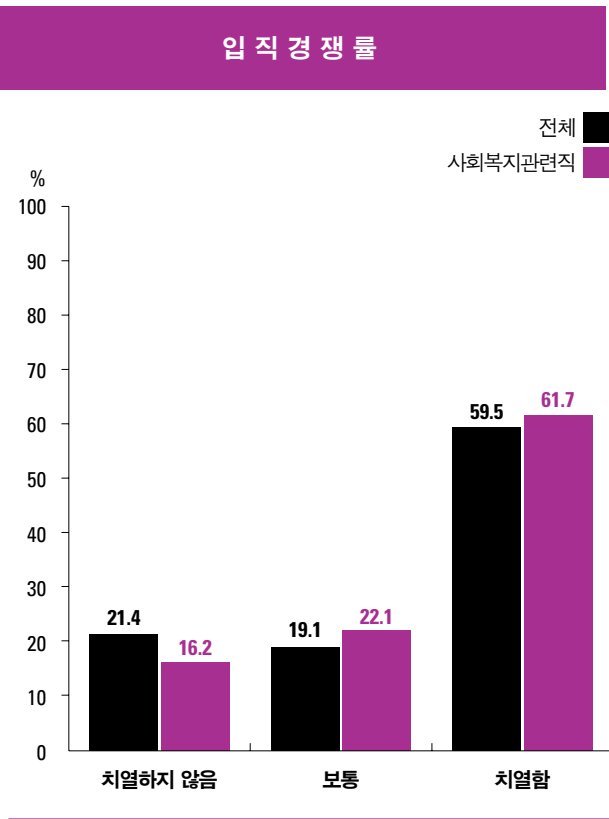
사회복지 관련직

01	사회복지사	284
02	상담전문가	289
03	직업상담원 및 취업알선원	293
04	사회단체활동가	297
05	보육교사	301
06	성직자	3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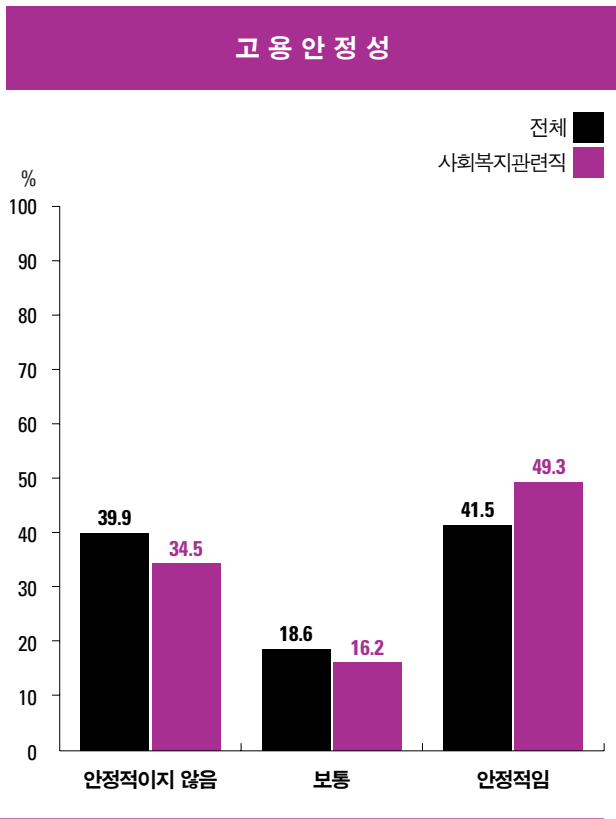
전문가가 본 향후 5년간의 직업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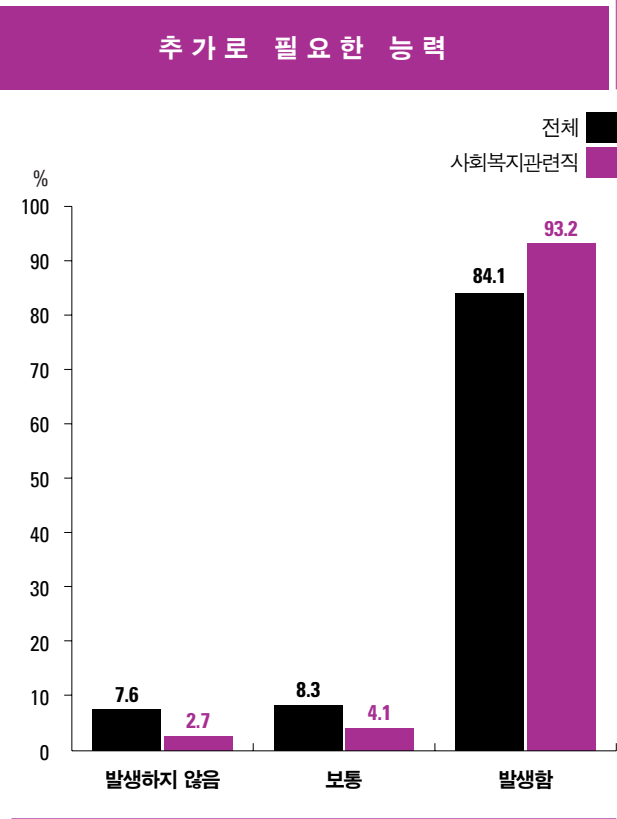
사회복지관련직 전문가의 67.6%가 향후 5년간 관련 직업에서 일자리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우리사회가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새로운 복지욕구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를 해결하고 지원해줄 수 있는 사회복지관련직의 일자리는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령화에 따라 노인요양시설을 비롯해 관련 복지시설이 증가하고 있고 여성의 사회진출과 저출산으로 영유아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 그리고 각종 사회문제로 심리적·정신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어 향후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상담전문가 등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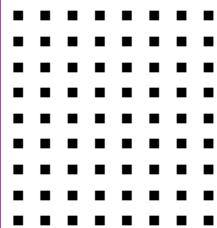
사회복지관련직 전문가의 61.7%가 향후 5년간 관련 일자의 입직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사회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면서 관련 직업의 지망생도 증가하고 있다. 또한 사회복지사의 경우 매년 관련 자격 취득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향후 사회복지관련직의 입직경쟁은 점점 치열해 질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상대적으로 근무환경과 보수가 좋은 종합사회복지관이나 공공상담기관, 공공보육시설 등의 경우에는 입직경쟁이 더욱 치열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향후 5년간 사회복지관련직의 이·전직 정도, 일자리 박탈 정도 등 고용안정성에 대해서 ‘안정적일 것’이라고 응답한 전문가가 49.3%, ‘안정적이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한 전문가가 34.5%로 나타났다. 사회복지관련직이 낯이 중요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의 고용형태로 근무하는 경우도 있고 임금수준과 근무환경이 열악한 관련 기관도 많아 고용이 안정적이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또 시민사회단체나 종교단체의 경우 회비나 후원금 등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재정상황에 따라 일자리 박탈 위험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비영리라는 조직적 특수성 때문에 향후 인력감축이나 구조조정 등으로 인한 인력의 해고는 크게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회복지관련직 전문가의 93.2%가 향후 5년간 관련 직업에서 추가로 필요한 능력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국민의 사회복지에 대한 욕구가 다양화, 세분화 되고 있어 전문성을 갖추고 새로운 지식 및 기술을 습득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사회복지사의 경우 노인, 장애인 등 대상별 전문성을 갖추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민단체활동가의 경우 각 시민사회단체들이 국제연대활동이나 국제적 이슈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어 국제적 감각과 외국어 능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밖에 성직자의 경우 온라인 상에서의 선교 및 포교 활동이 증가하고, 해외 선교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짐에 따라 컴퓨터 사용능력을 비롯해 외국어 실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는 일

● 사회복지사는 청소년, 노인, 여성, 가족, 장애인 등 다양한 사회적, 개인적 문제를 겪는 사람들에게 문제에 대한 진단과 평가를 통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전문가를 말한다.

● 사회복지사의 주요 역할은 어려움에 처한 복지 대상자를 선정하여 문제와 상황을 파악한 후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지 그 유형을 판단하고 복지조치 및 생활지도 등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일이다.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관, 단체, 시설을 비롯해 읍·면·동 및 시·군·구청의 행정기관 등에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각 분야의 보다 구체적인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회복지이용시설(사회복지관,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지원센터,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등) 및 사회복지생활시설(장애인재활시설, 아동양육시설, 모·부자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등)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는 아동, 청소년, 노인, 여성 및 장애인 등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보호, 상담, 후원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이들은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의 보호 및 지원 계획을 세워 대상자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준다. 또 개별적으로 상담업무를 수행하고 기타 지원 활동을 수행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복지서비스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 종합병원 및 정신병원 등의 의료기관에서 임상치료팀의 일원으로 활동하는 정신보건사회복지사가 있다. 이들은 환자의 문제 뿐 아니라 가족, 친구나 이웃 등의 환경 등에서 비롯될 수 있는 질병의 원인을 알아내어 치료에 장애가 되는 환자의 개인적·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도록 그 환경에 직접 개입하여 도와준다. 재활 및 사회복지를 위한 생활훈

련, 환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한 상담 및 지도업무를 담당하며, 작업훈련 및 질환 예방활동 등을 수행한다. 또한 환자가 퇴원한 후에도 정상적인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각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수급권자의 기초생활보장업무 및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한다. 또한 교정분야에서 범죄인 또는 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재활 및 범죄 예방을 위한 면담 및 지도를 하는 교정사회복지사가 있다. 이밖에 학교에서 문제학생의 학교적응을 도와주는 학교사회복지사, 작업장이나 기업체에서 근로자의 복지문제 개선을 위해 일하는 산업사회복지사, 군대 안에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군사회복지사 등이 있다.

근무환경

● 사회복지사는 초과근무나 야간근무가 많은 편이다. 사회복지이용시설의 경우 주민들을 대상으로 저녁에 진행되는 프로그램이 있고, 사회복지생활시설의 경우 24시간 사회복지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로 2교대 근무를 실시한다.

● 사회복지사의 업무는 복지서비스 외에 행정적 업무처리 등 잡무도 많아 노동강도가 센 편이다. 또한 사무실에서 주로 근무하지만 복지 대상자의 현황을 파악하고 평가하기 위해 직접 대상자를 방문하고, 각종 지원활동을 위해 출장을 나가기도 한다.

되는 길

● **교육 및 훈련** :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보통 전문대학 및 대학교,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및 사회복지관련학을 전공하면 사회복지사 2급 자격을 취득하게 되고 졸업 후 국가시험에 합격하면 1급 사회복지사를 취득할 수 있다. 대학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면 사회복지의 기초이론과 방법론 및 각 분야를 전반적으로 학습하게 되기 때문에 향후 업무수행을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 구체적으로 사회복지개론, 사회복지실천 방법론, 노인복지론, 아동복지론, 장애인복지론, 가족복지론 등의 과목이 포함되며 학기 중이나 방학 중에 사회복지현장실습도 하게 된다.

● **관련 학과** : 전문대학 및 대학교의 사회복지학과, 사회사업학과, 산업복지학과, 생활환경복지학과, 가정복지학과, 가족학과, 노인복지학과, 도시복지학과, 아동학과, 청소년학과 등이 있다.

● **관련 자격 및 면허** :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사회복지사 1, 2, 3급이 있다.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은 대학에서 관련 법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 및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학사학위 취득자나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이나 사회사업학을 전공한 석사 또는 박사 학위 취득자 등이 응시하여 합격하면 취득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 2급은 대학 및 전문대학에서 사회복지학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사회복지사 3급 자격증 소지자로 3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 경험이 있는 자 등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 3급은 전문대학 졸업자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교육훈련기관에서 12주 이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고등학교 졸업자로 교육훈련기관에서 24주 이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등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그리고 정신보건의료 영역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의 경우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자격증이 별도로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소지자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문요원 수련기관에서 1년 이상의 수련을 마치고 자격시험에 통과하면 정신보건사회복지사 2급을 취득할 수 있다. 또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한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전문요원 수련

기관에서 3년 이상의 수련을 마치면 1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 **입직경로 및 진출분야** : 주로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지역아동센터 등과 같은 사회복지이용시설이나 장애인재활시설, 아동양육시설, 모·부자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등의 사회복지생활시설 등으로 진출한다. 채용은 결원 발생 시 수시채용의 형태로 많이 이루어지며 시험 및 면접을 거친다. 또 정신보건사회복지사는 요양시설, 종합병원 및 정신병원 등의 의료기관으로 진출한다. 특히 병원이나 학교 또는 연구기관 등에서 근무하고자 한다면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는 것이 좋으며 이들 기관 역시 공개채용으로 입직할 수 있다. 이밖에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공무원 시험에 응시해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

● **승진 및 경력개발** : 사회복지사로 활동하면서 약 3년 정도의 경력이 쌓이면 주임(선임)사회복지사로 승진하고, 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약 5~7년이면 팀장의 위치에 오를 수 있다. 승진할수록 실무보다 관리업무가 많아지며 전체적인 부서활동을 총괄하게 된다. 보통 정책 및 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의 경우 사회복지사 1급 취득자를 선호하는 편이다. 매년 자체교육 및 연수, 외부 교육 및 세미나 등을 통해 다방면의 지식을 쌓아 자신의 역량을 넓히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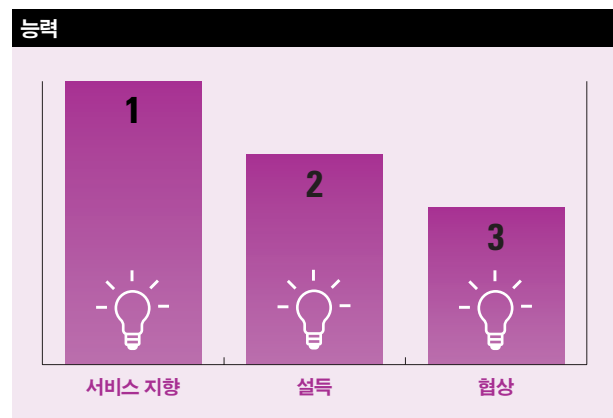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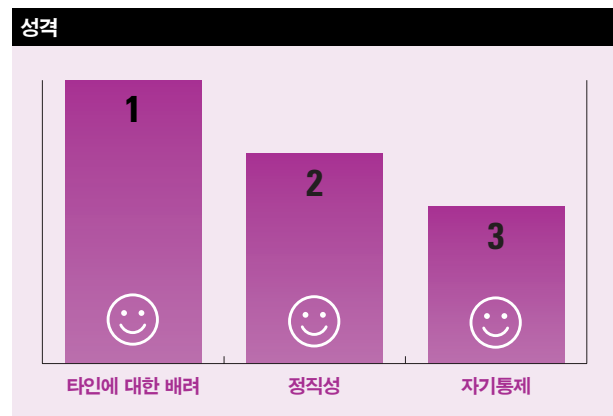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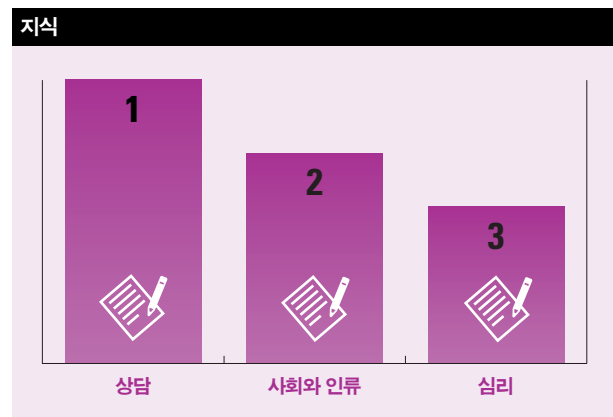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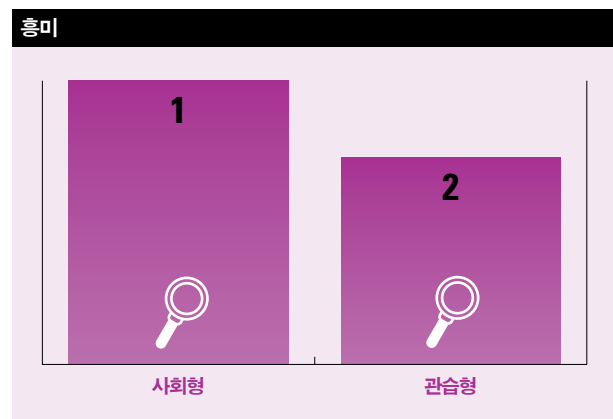
적성 및 흥미

● 사회복지전문가로서 사람들과 함께 어려움을 나눌 수 있는 열려있는 마음 자세가 필요하다. 하지만 단순히 희생·봉사 정신만으로 일을 할 수는 없으며 관련 분야에 대한 충분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직업인으로서의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있어야 사회복지사로 활동할 수 있다. 또한 팀을 이루어 근무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협동심,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능력이 요구되며, 분석 업무를 위해 컴퓨터 능력도 요구된다. 이밖에 새로운 사회복지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해야 하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 대한 호기심과 높은 창의력이 요구된다.



사회복지사

적성 및 흥미



직업전망

향후 5년간 사회복지사의 고용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선진국으로 발전할수록 사회복지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아동, 노인, 여성, 장애인 등 어려움에 처해 있는 모든 국민들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며, 동시에 삶의 질이 향상될수록 국민의 사회복지에 대한 욕구 또한 증가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우리사회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진입에 따라 새로운 복지욕구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고 지원해줄 수 있는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앞으로 더욱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지출은 GDP 대비 8.7%(2001년)로 OECD 회원국 중 최하위를 나타내고 있어 정부에서도 적정 복지지출을 확보함으로써 선진경제에 맞는 사회복지서비스의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어 향후 사회복지사의 일자리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회복지생활시설 및 사회복지관 현황 (단위 : 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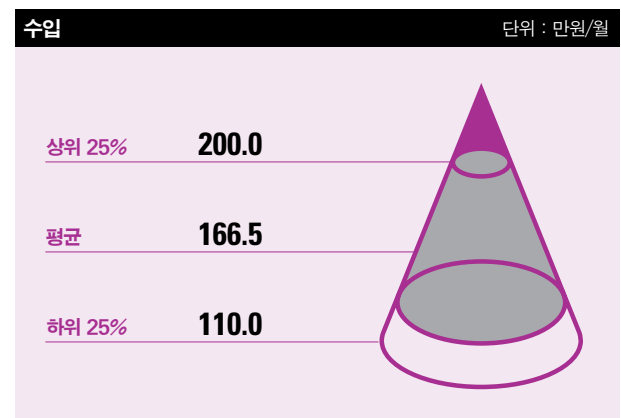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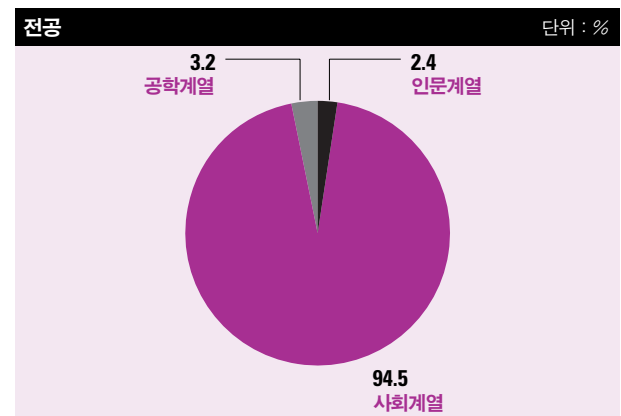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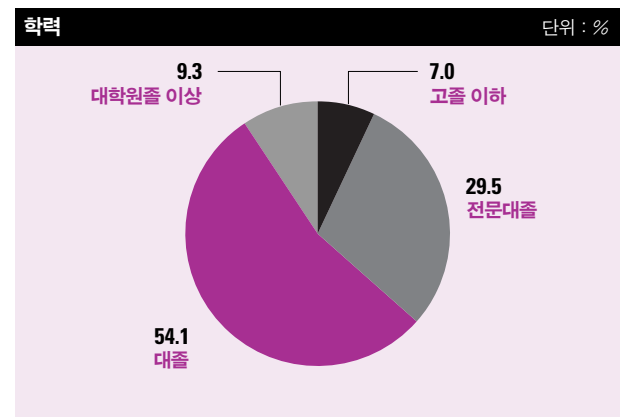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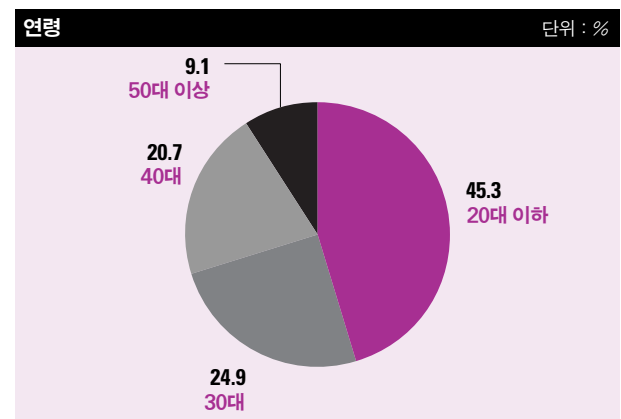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사회복지생활시설	879	933	945	1,021	950 ¹⁾
사회복지관	347	350	360	369	379

출처 : 『보건복지통계연보』, 보건복지부, 2005
주 : 1) 2004년의 사회복지생활시설 수의 경우 여성복지시설이 제외되어 집계된 수치임.

사회복지사의 일자리 창출은 사회복지생활시설, 사회복지관 등 관련 시설의 확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현재 정부에서 시설인프라의 확충을 위해 시설신축비와 시설 종사자 인건비 및 시설운영비를 지원하는 등 관련 시설의 확충을 적극 추진하고 있어 향후 사회복지사의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의 『보건복지통계연보』에 따르면 사회복지생활시설 수와 사회복지관 수는 큰 폭은 아니지만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특히 정부에서 2005년에 『희망한국 21-함께하는 복지』 대책을 발표하면서 복지정책 및 예산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복지시설의 증가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종사자 수 : 38,083명

자료 :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 한국직업정보시스템



세부적으로 보면 2008년 7월 도입되는 ‘노인수발보험제도’에 따라 앞으로 노인복지 분야에서 사회복지사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정부가 ‘노인의료복지시설 10개년 확충계획’에 의거 노인요양시설을 2011년에 완전 수요충족을 목표로 매년 100개소 이상 확충하고자 하고 있어 해당 시설의 사회복지사 수요가 예상된다. 또한 정부에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각종 정책의 효율적인 수행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민과 최접점에 있는 시·군·구 및 읍·면·동의 행정체계를 개편하여 찾아가는 서비스를 실현할 수 있도록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전반에 대한 통합적인 연계시스템 구축과 종합적인 정보제공 체계 구축을 추진 중에 있어 향후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수요도 지속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의 『보건복지백서』에 따르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1998년 3,000명에서 2005년 9,920명으로 꾸준히 충원되고 있다.

또한 경제성장과 더불어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기업의 사회환원과 관련한 기업복지재단 및 유사한 재단이 많이 생겨나고 있어 향후 해당분야의 사회복지사 진출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밖에 NGO 단체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다양한 기관에서 해외원조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향후 후원모금 및 해외원조사업과 관련된 분야에서 사회복지사 수요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자 수 (단위 : 명)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1급	23,748	30,028	40,515	45,834	50,878
2급	9,447	13,292	19,365	29,857	43,579
3급	9,097	9,273	9,443	9,758	10,188
총계	42,292	52,593	69,323	85,449	104,645

출처 : 『보건복지통계연보』, 보건복지부, 2005

보건복지부의 『보건복지통계연보』에 따르면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자는 2000년 42,292명에서 2004년 104,645명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이처럼 매년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자들이 증가하고 있어 앞으로 종합사회복지관을 비롯한 관련 복지시설의 입직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복지사

관련 정보처

- 보건복지부
☎ 02)504-1392 www.mohw.go.kr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 02)786-0845 www.welfare.net
-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사협회
☎ 02)701-5638 www.kamhsw.or.kr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02)380-8000 www.kihasa.re.kr

관련 직업

- 한국고용직업분류 코드
0711 사회복지사

02

상담전문가

하는 일

- 상담전문가는 성격, 적성, 진로 및 신체적·정서적 증상 등으로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갈등에 놓인 사람들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상담프로그램, 심리검사 등을 활용하여 지원하거나 도움을 주는 사람이다.

- 상담분야는 크게 상담심리분야와 임상심리분야로 구분되는데 병원(정신과) 등에서 정신장애자 및 부적응자들을 치료하기 위하여 상담에 응하는 분야는 ‘임상심리사’를 참고하기 바람여 여기서는 상담심리분야에 활동하는 상담전문가에 대해서 소개한다. 이들은 임상심리사와 달리 정상적 범주에 속하는 사람들에게 심리적 지원을 제공하여 병리적 행동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거나 부적응적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다.

- 상담전문가는 우울 및 불안 등의 정신건강문제, 학습문제, 교육문제, 진로문제, 가족문제, 성격문제 등 다양한 상담을 요청하는 개인(내담자)과의 대화를 통해 문제를 파악하고 진단한다. 그 후 각종 심리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를 해석해주며 상담을 실시한다. 상담은 개인상담, 집단상담, 자기성장프로그램, 대인관계 향상 프로그램 등 내담자의 상황에 맞게 다양한 방식으로 시행된다. 또한 상담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계획하는 것도 상담전문가가 수행하는 중요한 업무이다. 이밖에 상담실 운영을 위한 각종 행정적인 업무도 처리한다.

- 상담전문가는 주로 각 대학의 학생상담실, 공공기관의 상담실, 시·공립 청소년 상담실, 중·고등학교의 상담실, 사설 상담소 등에서 청소년상담원으로 가장 많이 활동하고 있다. 이밖에 아동, 성인(부모), 노인 등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상담을 수행하기도 한다. 특히 상담전문가는 근무하는 기관에 따라 업무가 차이가 있는데 대표적인 몇몇 업무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청소년상담기관에 근무하는 상담전문가는 청소년의 발달 단계와 진로·적성·흥미·인성 등의 심리적 상태를 고려한 개인 상담 및 집단 상담 프로그램을 수행한다. 또한 중·고등학교에서 학생의 진로 및 심리상담을 해주는 상담전문가는 학생들의 생활지도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조정하는 역할도 함께 수행한다. 특히 최근 교육부에서 전문상담교사를 선발하여 전국 각 시·도의 지역교육청 및 산하기관에 배치하여, 이들이 지역교육청 및 소속 학교의 학생들에 대한 상담프로그램 운영 및 상담활동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 종교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상담전문가는 목회상담을 통해 종교적인 갈등 해소를 돕는데 힘쓴다. 이 밖에 기업체 상담실의 상담전문가는 기업 내에서 원활한 대인관계 및 적응을 돕기 위한 심리상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며, 지역사회 연계망을 통해 지역 주민을 위한 상담교육을 기획·실시하기도 한다.

근무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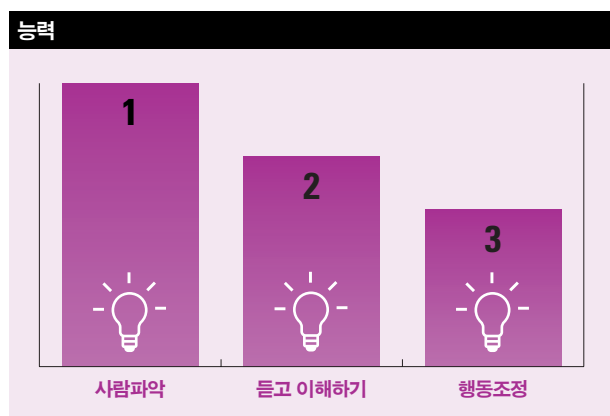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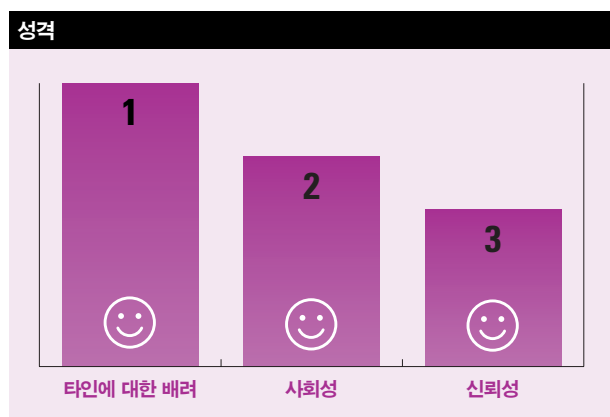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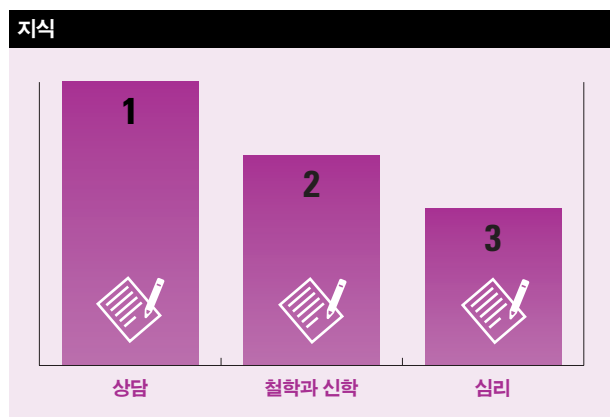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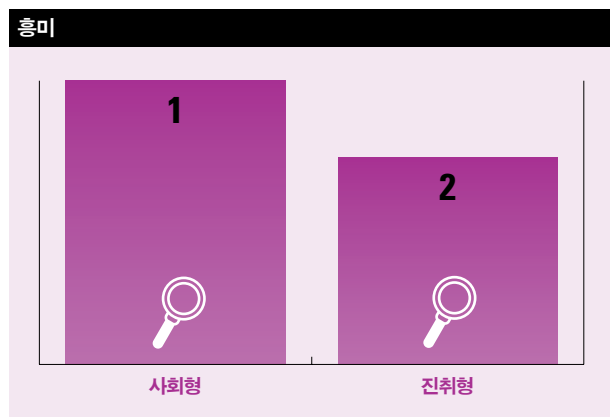
- 근무시간은 보통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이지만 내담자의 일정에 따라 야간이나 휴일에 상담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또한 소수이지만 24시간 상담이 이루어지는 상담실도 있다.

- 내담자와 편안한 상담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근무환경은 쾌적한 편이며 인락하고 소음이 적은 상담실에서 근무한다.

- 다양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을 만나야 하고 상담 내용에 대해 신중하고 사려 깊게 접근해야 하므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기도 한다.

상담전문가

적성 및 흥미



되는 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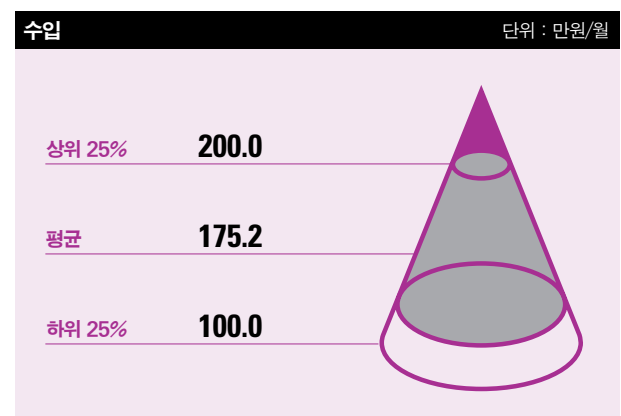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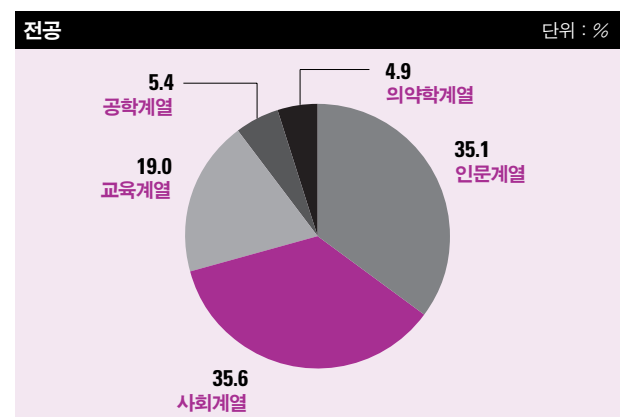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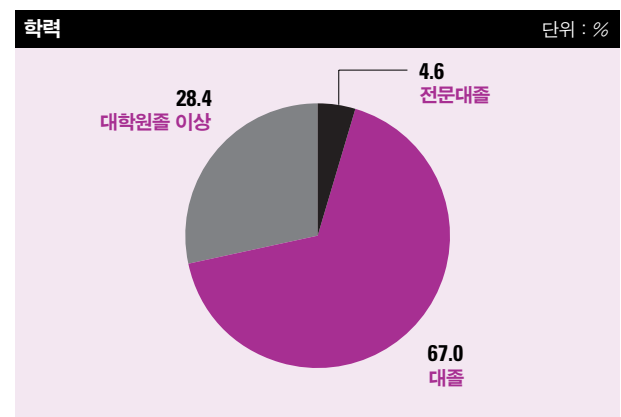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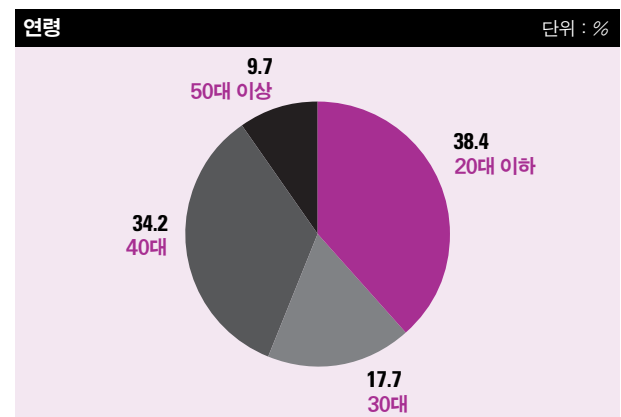
● **교육 및 훈련** : 상담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인간의 심층적 문제를 이해하고 다루기 위해서는 상담심리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습득하고 일정기간 수련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대학에서 심리학, 교육학 및 아동학 등 관련학을 전공한 후 상담심리학분야의 석사 및 박사학위 과정에 진학하는 경우가 많다. 대학의 관련 학과에서는 상담 및 심리치료 이론 및 실습, 집단상담 이론 및 실습, 성격심리학, 발달심리학, 이상심리학, 상담 및 면접기법, 학습심리학, 심리통계 및 심리평가 등의 과목을 배우게 된다. 특히 심리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교직을 이수하면 전문상담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이밖에 대학에서 관련 학과를 전공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상담관련 대학원에 진학하여 전문지식을 습득하면 상담전문가로 진출할 수 있다. 상담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유능한 전문가의 지도와 조언 아래 체계적으로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 실제 경험을 쌓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관련 학과** : 대학교의 심리학과, 교육학과, 아동학과, 청소년학과 등이 있다.

● **관련 자격 및 면허** : 국가자격증으로 한국청소년상담원에서 시행하는 청소년상담사 1, 2, 3급 자격증이 있다. 1급 응시자격은 상담관련 분야의 박사 또는 석사 학위 취득자로 상담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자 등으로 제한된다. 2급은 상담관련 분야 석사 및 학사 학위 취득자로 상담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그리고 3급은 상담관련 분야의 학사 학위 취득자 및 고등학교 졸업자로 상담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등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시험에 합격한 후 100시간의 연수를 이수하면 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또한 한국상담심리학회 상담심리사 1급, 2급 자격증이 있는데 이것은 민간자격증으로 현재까지는 상담분야에서 가장 인정받고 있는 자격증이다. 상담관련 분야의 박사 학위 취득 후 상담경력이 1년 이상이거나 관련 분야 석사 학위 취득 후 상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등이 상담심리사 1급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상담심리사 2급의 경우 상담관련 분야의 학사학위 취득 후 수련감독자의 감독 하에 2년 이상의 상담경력을 가진 자 등이 응시할 수 있다.

종사자 수 : 8,347명

자료 :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 한국직업정보시스템



● **입직경로 및 진출분야** : 청소년상담기관, 중·고등학교 및 대학교의 상담실, 사회복지기관, 공공기관의 상담실, 기업체 및 사설상담소에 입직하거나 개업을 통해 상담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다. 재학 중에 상담실 등에 자원봉사로 활동하며 경험을 쌓으면 취업 시 유리하다. 보통 상담실에서는 구인광고를 통한 공개채용으로 입직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교수나 선후배 등의 인맥을 통해 취업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사설상담소를 개업하는 것은 보통 여러 기관에서 경험을 통해 경제적 및 사회적인 기반을 다진 후에 이루어진다. 이밖에 심리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교직을 이수하여 전문상담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임용고시를 거쳐 중·고등학교 등에서 전문상담교사로 활동할 수 있다.

● **승진 및 경력개발** : 보통 상담전문가는 3~5년 근무한 후 전임 또는 선임 상담원으로 승진한다. 그 후 상담부장을 거쳐 상담실장의 직위까지 승진할 수 있다. 특히 상담전문가들은 워크숍, 사례연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자기계발을 하며, 박사학위까지 취득하여 대학교수로 입직하거나 상담연구업무를 수행하기도 한다. 또한 별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임상심리사나 사회복지사 등의 자격증을 취득하는 경우도 있다.

적성 및 흥미

● 내담자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문제를 파악할 수 있는 통찰력, 포용력, 성실성, 인내심 등이 필요하며,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다. 상담전문가는 상담을 하는 동안 내담자의 말, 표정, 태도 등 내담자의 모든 것을 관찰하면서 대화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집중력과 정신력이 요구되며, 문제 및 원인 파악을 위해 분석적이고 종합적·통합적인 사고력이 필요하다. 또한 상담을 이끌어 가는 기술도 필요하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 만큼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황대처능력도 요구된다.

상담전문가

직업전망

● 향후 5년간 상담전문가의 고용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신체건강 못지않게 정신건강도 중요하다. 특히 사회가 복잡하고 다양화되면서 인간 소외 현상으로 외로움을 겪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고, 가정, 사회, 학교, 직장 등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으로 인해 심리적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고 도와줄 수 있는 상담전문가의 수요는 앞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상담기관의 상담현황에 대한 공식적인 집계는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상담전문가가 주로 활동하고 있는 청소년 상담분야의 현황을 살펴보면 2000년 약 128만여 건이던 상담이 2004년 약 1,185만여 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우리 사회에서 상담전문가의 필요성을 반영해주고 있다.

한국청소년상담원 및 16개 전국 광역·도 청소년종합상담실 상담건수 (단위 : 건)					
연도	2000	2001	2002	2003	2004
상담건수	1,288,477	1,985,391	2,268,051	11,440,155	11,859,439

출처 : 『청소년백서』, 문화관광부, 각 연도

● 세부적으로 보면 상담전문가가 주로 활동해오던 청소년 상담분야에서는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은 신체적·정서적·사회적 성장이 급격히 이루어지는 과도기적 발달단계에 있기 때문에 불안정한 심리상태를 갖기 쉽다. 특히 입시위주의 교육 현실로 인해 학습장애를 비롯해 심리적 고통을 겪는 청소년들이 많기 때문에 청소년 분야에서 전문상담가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다양한 유형의 청소년 문제 대처와 전문적인 학생상담을 위하여 2005년 전국 181개 지역교육청에 전문상담순회교사 308명을 임용·배치하는 등 학교상담 활성화를 추진 중에 있다.

● 앞으로 고령화에 따라 노인요양시설을 비롯해 관련 복지시설이 증가하면서 노년기의 건강, 심리, 일상생활, 경제문제 등 노인 분야의 전문상담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주의력 결핍이나 행동 장애를 겪는

아동들이 증가하고 유아기부터 과도한 학습으로 학습스트레스를 겪는 아동들이 증가하면서 아동 분야의 상담전문가 수요도 예상된다. 더불어 기업에서 직원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직장생활에서의 원만한 인간관계와 스트레스 감소 등이 업무효율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임을 인식하면서 직원들의 정신건강을 위해 심리상담을 도입하는 기업이 늘고 있어 일반 기업에서의 상담전문가 수요도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일자리가 증가하는 만큼 매년 대학 및 대학원에서 배출되는 전문인력도 많아 입직경쟁은 다소 치열한 편이다. 하지만 일부 영세한 규모의 사설 상담소의 경우 근무환경이나 임금수준이 열악해 적합한 인력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관련 정보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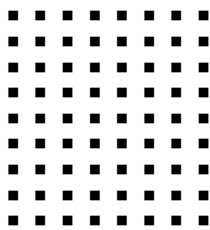
● 한국상담심리학회
☎ 02)498-8293 www.kr CPA.or.kr

● 한국청소년상담원
☎ 02)2253-3811 www.kyci.or.kr

관련 직업

● 한국고용직업분류 코드
0712 상담전문가

03



직업상담원 및 취업알선원

하는 일

● 직업상담원 및 취업알선원은 구직자에게 적합한 일자리 정보를 제공해 주고, 구인을 희망하는 업체에는 적합한 인력을 공급해 주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 직업상담원은 노동부가 지역별로 설치한 고용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사람들로 주로 취업지원 및 직업소개, 직업지도, 고용보험 등 고용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시·군·구청 취업정보센터, 여성, 청소년, 노인관련 단체, 대학교의 취업정보실 등에서 근무하며 직업 및 취업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해 주는 직업상담원도 있다. 구체적으로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직업상담을 중심으로 업무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직업상담원은 적성, 흥미검사 등 직업심리검사를 실시하여 구직자의 적성과 흥미에 알맞은 직업정보를 제공하고 청소년, 여성, 중·고령자, 실업자 등을 위한 직업지도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을 담당한다. 이를 통해 방문구직자에게는 신속한 취업을 지원하고, 구인을 희망하는 기업에게는 적합한 인재를 알선한다.

— 직업상담원이 수행하는 주요 상담업무에는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관계법규 등 노동시장에서 발생하는 직업과 관련된 법적인 일반 사항에 대한 상담과 구인·구직상담, 창업상담, 경력개발상담, 직업 적응상담, 직업전환상담, 은퇴 후 상담 등의 각종 직업상담이 포함된다.

— 취업이 곤란한 구직자(장애자, 고령자, 여성, 자활대상자)에게 보다 많은 취업기회를 제공하고 구인난을 겪고 있는 기업에게 다양한 인력을 소개하기 위하여 구인처 및 구직자를 개척한다. 또한 대학 및 직업훈련기관 등에서 취업특강 및 취업박람회

를 기획하고 운영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 이밖에 고용촉진장려금 및 육아휴직장려금 등의 고용안정사업과 실업급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관리, 직업능력개발사업 등 고용보험업무,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관련 업무 등을 수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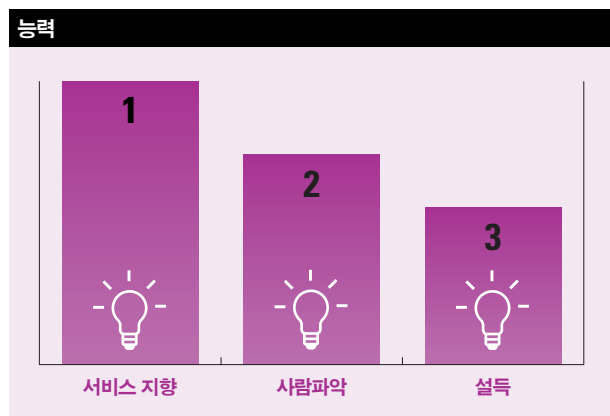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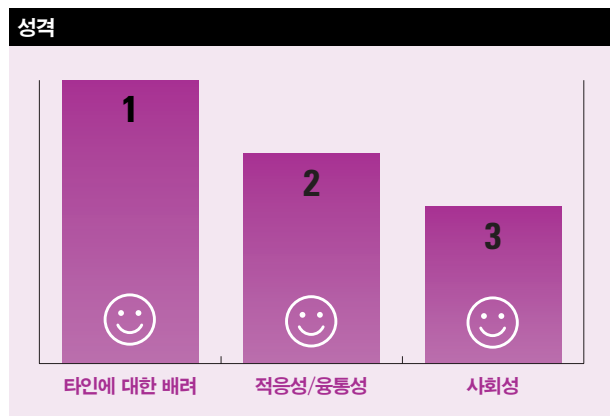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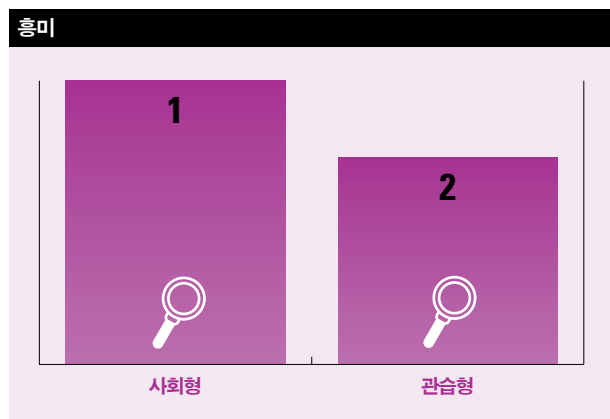
● 취업알선원은 직업소개소 및 헤드헌팅업체 등에서 구직자와 구인자에 대한 정보를 토대로 서로에게 적합한 대상을 선정하여 소개하는 일을 한다. 경비, 건설노동자, 경리, 운전기사, 식당종사자 등 단순 직업 소개 업무에서 중견 간부급 이사, 전문경영인, 고급기술자 등의 고급 인력에 대한 관리 업무까지 직업소개소의 영역도 다양해지고 있다. 특히 고급인력에 대한 관리 및 기업체가 원하는 인력에 대한 선정에서부터 평가, 알선까지 여러 단계의 조사과정을 거쳐 적정인력을 소개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헤드헌터라고 한다.

— 헤드헌터는 보통 컨설턴트와 리서처로 나뉜다. 컨설턴트는 구인처 발굴을 위해 기업체를 대상으로 영업활동을 하며 추천자의 최종평가 및 고객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리서처는 구인업체 및 구직자의 요구에 상응하는 대상을 조사하여 컨설턴트에게 추천하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규모가 작은 업체에서는 한명이 모든 업무를 담당한다. 요즘은 의료분야, 법조분야, IT분야 등 분야에 따라 알선 업체가 전문화되어가는 추세이다.

— 이밖에 파견근로 대상 직종의 근로자를 모집하고 업체에 공급하며, 파견을 위한 계약서 작성, 파견 근로자의 임금 및 복리후생관리 등 파견근로자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파견관리원도 이 직종에 포함된다.

직업상담원 및 취업알선원

적성 및 흥미



근무환경

○ 상담업무가 물리는 취업 시즌이나 취업박람회 같은 각종 행사 등을 앞두고 초과근무, 야간근무를 많이 한다. 대부분 상담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실내근무가 많으며, 직업지도, 취업특강, 기업·구직자 개척 등을 위하여 실외근무를 하기도 한다.

○ 상담자와 마주보며 컴퓨터 입력을 병행해야 하는 일이 많고, 전화 상담과 컴퓨터 작업을 병행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눈이나 목, 손, 어깨 등에 통증을 호소하기도 한다.

되는 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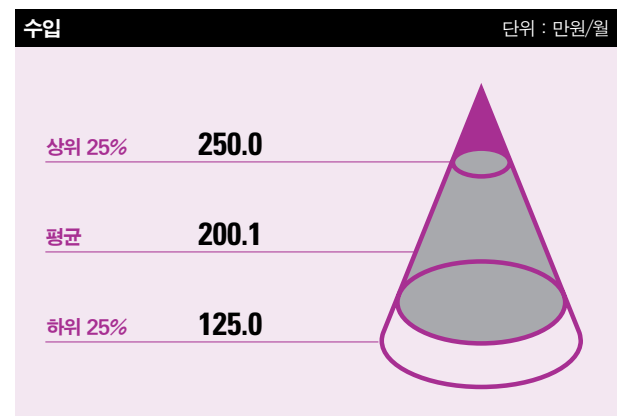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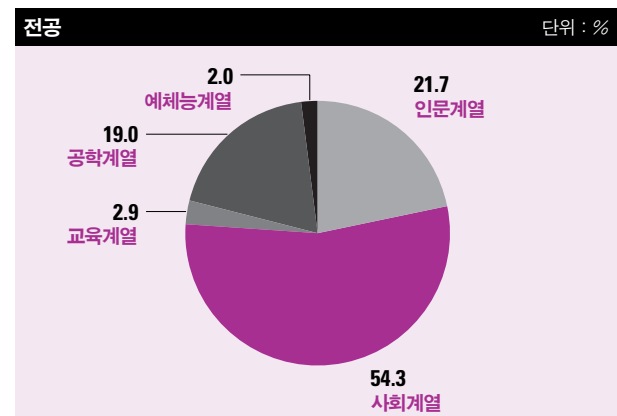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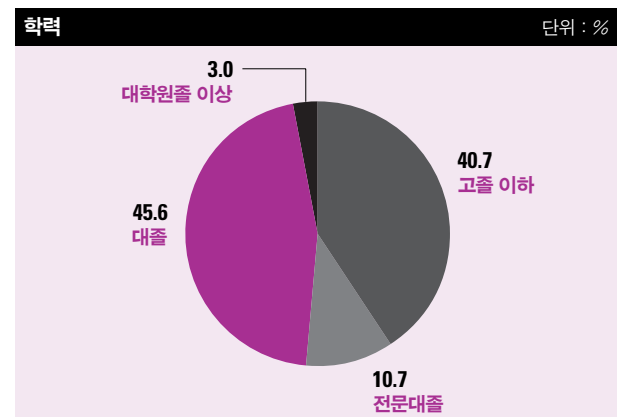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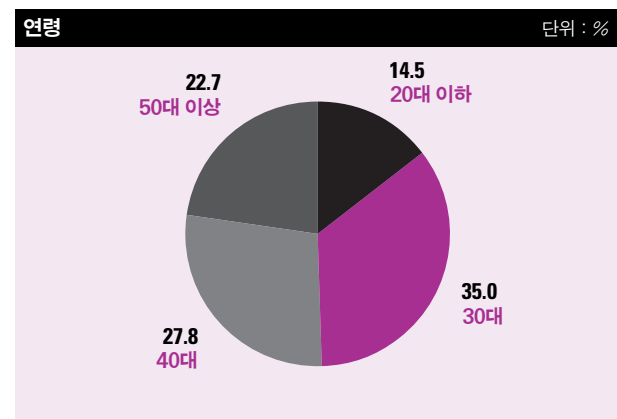
○ **교육 및 훈련** : 직업상담원이 되기 위해서는 4년제 대학 이상을 졸업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직업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유리하다. 관련 학과로는 심리학과, 교육학과, 사회복지학과 등이 있으며 기타 사회교육 기관 및 사설학원 등에서 직업상담사 과정을 운영하기도 한다. 또한 외국기업을 주요 고객으로 하는 고급인력알선업체에서는 석사학위 이상의 근무자도 많으며 최소 대졸 이상의 학력과 외국어 능력을 갖추어 놓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헤드헌터 중 컨설턴트는 대개 해당분야의 관련 경력이 있어야 업무수행이 가능하다. 이밖에 각종 직업소개소의 경우는 회사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고졸이상의 학력을 갖추면 취업이 가능하다. 특히 자원봉사 활동 등으로 상담 현장경험을 많이 해보는 것이 취업하는데 유리하다.

○ **관련 학과** : 전문대학 및 대학교의 심리학과, 교육학과, 사회복지학과와 경영·경제·회계·행정학 등의 상경계열학과가 있다.

○ **관련 자격 및 면허** : 국가기술자격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직업상담사 1급, 2급 자격증이 있다. 직업상담사 2급은 학력 및 경력에 제한이 없으며 직업상담, 심리학, 직업정보론, 노동관계법규의 필기시험과 직업상담실무의 실기시험으로 평가된다. 1급은 2급 자격 취득 후 해

종사자 수 : 31,964명

자료 :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 한국직업정보시스템



당 실무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자, 해당 실무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자 등이 응시할 수 있다.

○ **입직경로 및 진출분야** :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업상담원의 경우 보통 서류전형, 전산능력시험 및 면접시험 등을 거쳐 채용이 이루어진다. 이외에 직업상담원은 시·군·구청 취업정보센터, 직업훈련기관, 국방취업지원센터 등의 공공직업안정기관과, 여성·청소년·노인관련단체, 대학교의 취업정보실 등으로 진출할 수 있다. 또한 취업알선원은 주로 유료직업소개소, 고급인력알선업체(헤드헌팅업체), 인력파견업체 등에서 활동한다.

○ **승진 및 경력개발** : 노동부 고용지원센터 직업상담원의 직급체계는 '전임상담원 → 책임상담원 → 선임상담원 → 수석상담원'이다. 승진에 필요한 근무연한은 보통 전임에서 책임까지 4년, 책임에서 선임까지 4년, 선임에서 수석까지 5년이 소요된다. 승진심사는 근무연한과 근무실적에 의해 평가된다. 헤드헌터는 리서처로 입사하여 컨설턴트로 승진할 수 있고 또한 일정경력을 쌓은 후 창업하여 헤드헌팅업체를 설립할 수 있다.

적성 및 흥미

○ 상담 및 심리에 관한 지식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며,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와 봉사정신이 요구된다. 많은 사람을 대면하므로 의사소통능력과 타인에 대한 배려, 친절한 태도 등이 필요하다. 또한 각종 자료들을 분석하여 적합한 인력을 알선하고 취업을 지원할 수 있는 분석력과 통찰력이 필요하며, 컴퓨터 활용능력도 요구된다. 다양한 사람들을 상대하다 보니 의도하지 않게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통제력을 비롯해 스트레스 관리능력, 끈기 등이 필요하다.

직업상담원 및 취업알선원

직업전망

● 향후 5년간 직업상담원 및 취업알선원의 고용은 현 상태를 유지하거나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IMF 이후 조기퇴직, 명예퇴직 등으로 퇴직자가 증가하고 청년 실업자가 증가하면서 고용알선 및 인력공급업 사업체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향후 구인자와 구직자를 연결해주는 취업알선원의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시, 군, 구청 산하 취업알선부서의 신설 및 강화, 여성·청소년·노인 등 취약계층 관련 단체에서의 취업지원부서 운영 그리고 무엇보다 각종 민간 직업안정기관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향후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통계청의 『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에 따르면 국내 고용알선업 및 인력공급사업체 수는 2000년 4,824개소에서 2004년 7,058개소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인력공급업 및 고용알선업 현황			(단위 : 개소)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인력공급업체	2,025	2,310	2,478	2,714	2,858
고용알선업체	2,799	3,244	3,918	4,178	4,200
계	4,824	5,554	6,396	6,892	7,058

출처 : 『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 통계청, 각 연도

●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기업에서 CEO나 임원급 인재를 외부에서 영입하는 경우가 증가하면서 국내 기업들의 헤드헌팅회사 이용율이 증가하고 있고 헤드헌팅업체가 관리하는 대상인력 또한 고급인력에서 중간관리자, 전문인력까지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어 향후 헤드헌터의 일자리 창출이 예상된다. 또한 평생직장의 개념이 점차 사라지며 이·전직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 직장을 찾아주는 헤드헌터의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업상담원의 경우 2001년 이후 신규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로 인해 1998년(1,296명) 이후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던 직업상담원의 수가 2000년(1,919명) 이후에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5년 기준 95개의 고용지원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직업상담원 수는 약 1,600명이다. 2006년 7

월 고용안정센터에서 고용지원센터로의 변화를 시작으로 정부가 고용지원서비스 선진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인력 확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향후 고용지원센터의 직업상담원의 일자리는 현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 정보처

● 노동부
☎ 02)2110-2114 www.molab.go.kr

● 고용지원센터
jobcenter.work.go.kr

● (사)한국직업상담협회
☎ 02)584-4220 www.kvoca.org

관련 직업

● 한국고용직업분류 코드
0713 직업상담사 및 취업알선원

04

사회단체활동가

하는 일

● 시민사회단체는 우리 사회의 각종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시민들이 만든 단체로 이곳에서 사회의 공익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을 사회단체활동가라 한다. 보통 활동하는 분야에 따라 시민운동가, 인권운동가, 통일운동가, 환경운동가 등 각종 사회운동가라고 불리며, 단체 내에서는 간사라는 호칭을 주로 사용한다.

● 사회단체활동가 하면 보통 시민사회단체에서 상근하며 단체의 사업 및 운영 실무를 책임지는 사람을 말한다. 이외에 사회단체에는 주 40시간 일하는 상근자의 약 절반 가량 일하는 반상근자를 포함해 대학교수 및 변호사 등 전문직업이 따로 있으며 자문활동을 하는 실행위원(운영위원, 고문, 자문), 중·고등학생, 대학생 등 학생층과 주부나 퇴직자, 기타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원봉사를 하는 자원활동가 등이 일하고 있다.

● 시민단체마다 관심 있는 영역이 다르고 그 성격과 활동방식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회단체활동가의 하는 일 또한 차이가 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특정 사회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시민에게 알리고, 이의 해결책을 강구함으로써 보다 나은 사회를 만들어나가는 일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 바른 정치, 중앙권력 감시, 환경 보호, 소비자 권익 보호, 경제 민주화 실천, 교육 문제해결 등 자신이 소속된 단체와 관련한 각종 사회활동을 연구하고 평가하여 의제를 설정한다. 조사를 통하여 특정 문제가 드러나면, 집회, 캠페인 등을 통해 그 심각성을 시민에게 알려 여론을 형성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여 실제 정책을 결정하는 행정부, 의회 등에 의견을 제시한다.

— 시민사회단체는 보통 회원의 회비와 후원을 통해 운영되기 때문에 회원을 관리하고, 기금을 모금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 또한 시민이나 언론으로부터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홍보활동을 담당하기도 하며, 기관 및 단체, 개인을 대상으로 자문 및 상담을 진행한다.

근무환경

● 근무시간은 단체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보통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이다. 하지만, 자문가와 회의나, 집회 참석, 캠페인 활동 등으로 인한 외근이나 야근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출근 시간은 다소 자유로운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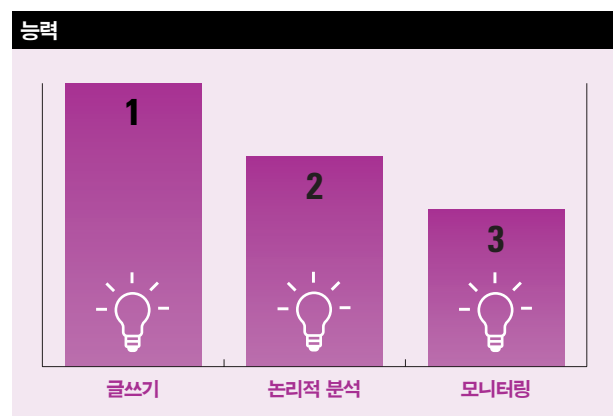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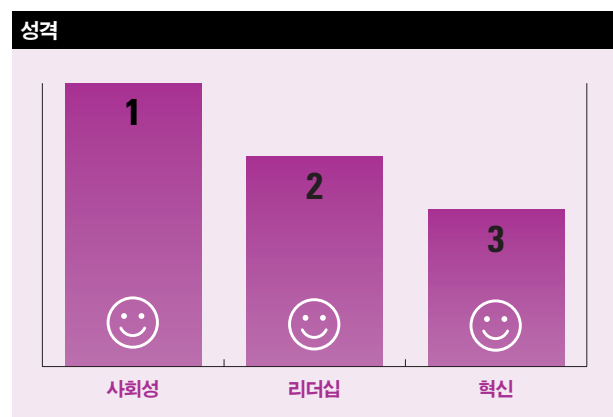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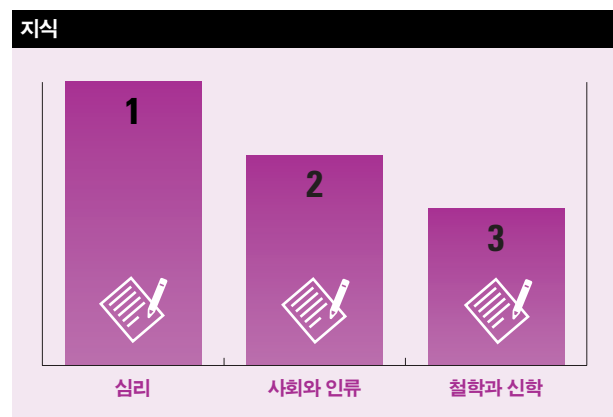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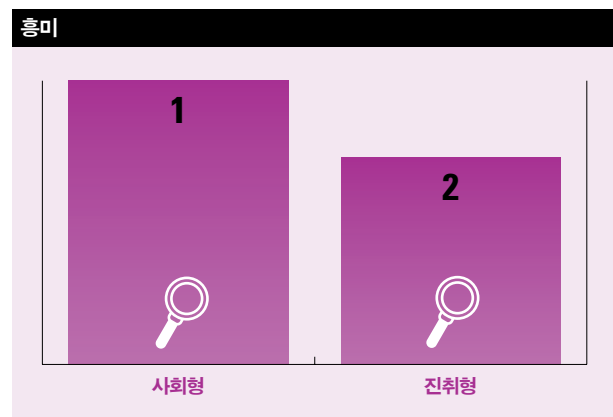
● 시민사회단체의 경우 소수의 상근자가 대다수의 일을 담당하기 때문에 노동강도가 매우 센 편이다. 또한 회원들의 회비를 통해 운영되기 때문에 임금이나 복리혜택도 열악한 편이다. 하지만 최근 상근자의 경우 4대 보험의 혜택을 받는 등 예전에 비해서는 복지여건이 점차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다.

되는 길

● **교육 및 훈련** : 사회단체활동가가 되기 위해서는 고졸 이상의 학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시민단체의 활동들이 매우 전문화되면서 인력 채용 시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학사 또는 석사학위 이상의 취득자로 학력이 제한되기도 한다. 주로 사회학, 정치학, 법학, 사회복지학, 경제학, 환경공학, 정보통신학 등 다양한 분야를 전공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상근자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일부 대학원에 개설되어 있는 NGO관련학과를 전공하

사회단체활동가

적성 및 흥미



는 사람들도 진출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단체활동가들이 NGO대학원으로 진학하는 경우가 많다. 사회단체활동가가 되기 위해서는 특정 학력 또는 전문학위를 갖추는 것보다 다양한 사회활동 경력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우리 사회의 각종 문제나 시민운동에 많은 관심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학생시절 각 시민사회단체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해보거나 몇몇 단체에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인턴십프로그램에 참여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일부 대학 및 대학원의 NGO관련 과목을 통해 시민사회단체에서 인턴으로 활동하며 교육을 받고 학점을 인정받는 경우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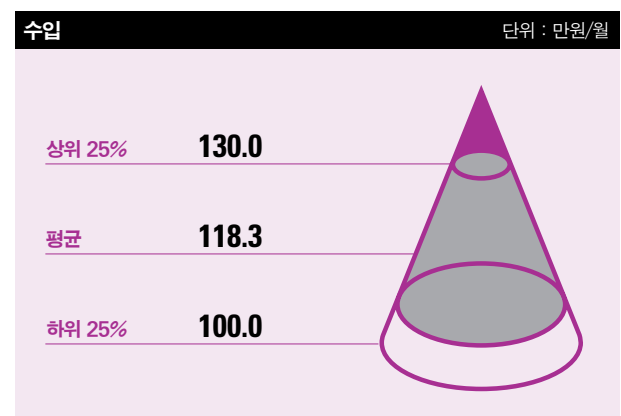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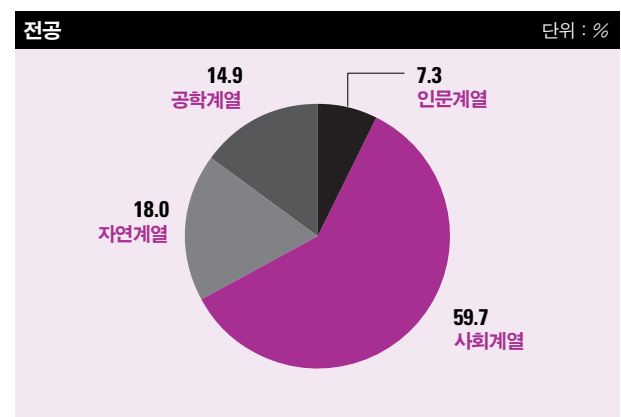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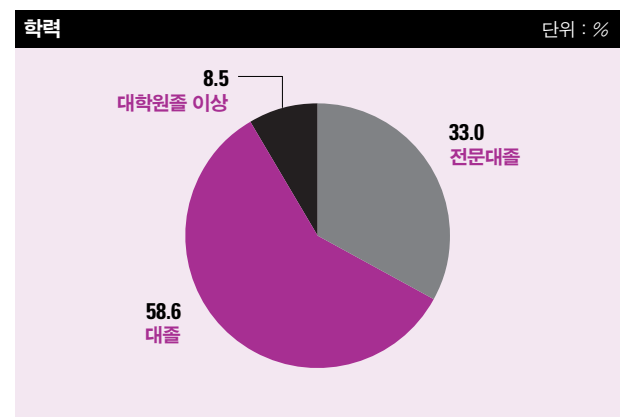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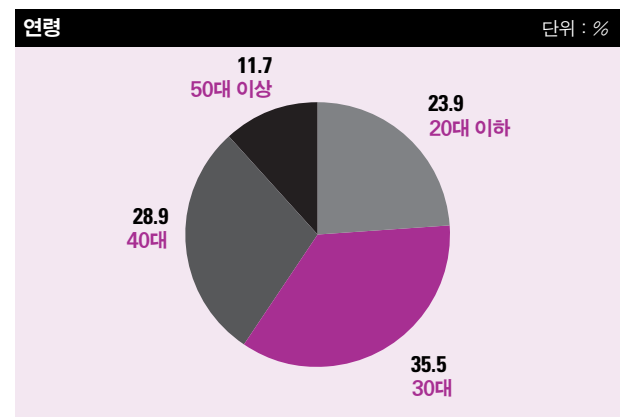
● **관련 학과** : 전문대학 및 대학의 사회학과, 정치학과, 법학과, 사회복지학과, 경제학과 등의 전공자가 많이 활동하나 일반적으로 전공은 관계없으며, 대학원과 사이버대학 등에 NGO관련 학과가 개설되어 있다.

● **입직경로 및 진출분야** : 인권, 환경, 교육, 여성, 정치, 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시민단체로 진출한다. 보통 대학 재학시 사회운동이나 자원활동을 하며 특정 분야의 관심을 갖게 되면서 관련 분야의 시민단체로 진출하는 경우가 많다. 과거에는 주로 인맥을 통하여 채용이 많이 이루어졌지만, 최근에는 필기 및 면접시험 등의 공개채용을 통해 입직한다. 정기적인 공채는 아니며, 결원이 있을 때마다 수시 채용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이밖에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다가 신문, 방송, 잡지 출판 등의 언론분야에 진출하기도 하며, 정치 및 교육 분야로 진출할 수도 있다.

● **승진 및 경력개발** : 시민사회단체로 입직하면 간사라는 직책을 얻게 되며, 경력이 쌓이면서 해당부서의 팀장, 사무처장, 사무국장 등의 위치에 오를 수 있다. 대개 출퇴근 시간이 자유롭고, 단체에서도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사원의 자기계발을 지원하는 편이기 때문에 대학원에 진학하는 경우가 많은 편이다.

종사자 수 : 4,998명

자료 :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 한국직업정보시스템



적성 및 흥미

● 기본적으로 사회문제를 비롯해 우리 사회 전반에 다양한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적합하며, 사회의 공익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사명감과 희생정신이 필요하다. 또한 자신의 주관이 뚜렷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맡은 일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책임감과 추진력, 끈기 등이 요구된다. 이밖에 많은 사람들과 함께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외향적이고 적극적인 성격의 소유자가 적합하다.

직업전망

● 향후 5년간 사회단체활동가의 고용은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사회가 점점 복잡·다원화 되면서 시민들의 권리와 이익을 찾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어 향후 시민단체의 활동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정보화, 세계화, 지방화 등으로 특징지어지는 최근 시민사회 단체의 활동으로 인하여 향후 사회단체활동가의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인터넷이 보편화되면서 앞으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함께 연계하는 사이버시민운동이 보편적인 시민운동 형태로 등장하게 될 것이다. 실제로 사이버 공간을 둘러싼 여러 문제들에 대한 시민단체들의 활동이 이어지고 있어 향후 정보통신 분야의 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사회단체활동가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최근 1~2년 사이에 평화운동을 중심으로 시민단체들이 국제연대활동이나 국제적 이슈에 깊은 관심을 보이기 시작해서 국제적 감각과 외국어 능력을 갖춘 사회단체활동가의 일자리 창출이 예상된다. 또한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면서 지역에 근거를 둔 시민사회단체의 중요성도 부각되고 있어 향후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단체활동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현황

(단위 : 개소)

연도	2002	2003	2004	2006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수	4,123	4,623	5,095	6,365

출처 : 행정자치부 시민협력과

● 행정자치부의 비영리민간단체 등록현황을 살펴보면 2002년 4,123개소에서 2006년 6,365개소로 매년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다. 이것이 시민사회단체의 정확한 집계라 할 수는 없지만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민간단체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시민사회단체의 성장을 반영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 수나 활동영역이 넓어진다고 해도 시민들의 후원금으로 이루어지는 시민단체의 특성상 영세한 규모의 단체가 대다수이며, 인력 또한 소수로 이루어진 곳이 많기 때문에 향후 사회단체활동가의 일자리 수가 양적으로 크게 증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사회단체활동가의 경우 2~3년 이상 활동하다가 다른 단체나 정치, 언론 등 타 분야로 이·전직하는 비율이 높아 대체 인력에 의한 수요는 지속적인 편이다.

● 시민사회단체의 경우 기업과 같은 일반적인 노사관계가 아니라 구성원간의 합의로 이루어지는 조직적 특수성 때문에 인력감축이나 구조조정 등으로 인한 해고나 일자리 감축은 많지 않은 편이다.

● 시민단체의 활동이 보다 세분화 되면서 앞으로 사회단체활동가가 되기 위해서는 관심 분야의 전문성과 국제적인 감각을 갖추어 놓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시민사회단체의 복지여건이 점차 개선되고 있지만, 열악한 근무환경과 경제적인 여건 및 복지, 이념 차이 등으로 신규인력의 이·전직은 여전히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 정보처

- 행정자치부
☎ 02)2110-2114 www.mogaha.go.kr

- 참여연대
☎ 02)723-5300 www.peoplepower21.org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02)765-9731 www.ccej.or.kr

- 환경운동연합
☎ 02)735-7000 www.kfem.or.kr

- 녹색연합
☎ 02)747-8500 www.greenkorea.org

관련 직업

- 한국고용직업분류 코드
0714 사회단체활동가

05

보육교사

하는 일

● 보육교사는 보호자의 위탁을 받은 영유아(0~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이들에게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사람이다.

● 보육교사는 영유아의 성장과 발달과정에 있어 보호와 교육적 측면의 전문가라 할 수 있다. 이들은 영유아의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지적 발달이 균형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방법을 연구하고 적용하며, 영양, 위생, 안전을 위한 보호서비스의 제공을 통해 영유아의 전인적 발달에 기여한다.

— 위탁된 영유아의 심신상태 및 발육단계 또는 건강상태, 연령 등에 따라 구분하여 그에 적합한 각각의 보육계획을 세워 이행하게 된다. 각 유아의 개별적 요구와 관심을 상세히 관찰한 후 이에 맞는 보육방법을 결정하고 교수방법 및 교재를 선택하여 지도한 후 그 결과를 보육일지에 기록한다.

— 그림책, 장난감, 악기 등을 이용하여 유아의 정서 및 지능발달에 도움을 주는 활동을 하며 수면 및 휴식 시간에 유아들을 보살피고 균형 있는 영양공급과 바른 식습관을 지도한다.

— 유아들을 집에 보내고 난 후에는 교실이나 교구 등을 정리하고 비품을 관리한다. 또한 관찰 내용과 지도경과를 보육일지에 기록하고 아동들의 보육상태를 평가하여 부모들과 아동들의 성장에 관련된 문제를 상담하기도 한다.

● 한 명의 보육교사가 여러 명의 영유아를 담당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업무를 도와주는 보조보육교사나 자원봉사자가 있는 경우도 있다.

근무환경

● 일반적으로 보육시설은 오전 7시 30분에서 오후 7시 30분까지 운영하고 있지만 시간연장형 보육시설로 지정된 시설은 오후 9시 30분 이후까지 연장하여 보육하고 있다. 또한 휴일보육시설로 지정된 시설은 일요일 및 공휴일에도 보육하고 있다. 따라서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은 보육시설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보통 근무시간 전후로 추가근무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시설에 따라 오전, 오후 교대 근무하거나 휴일에도 교대 근무를 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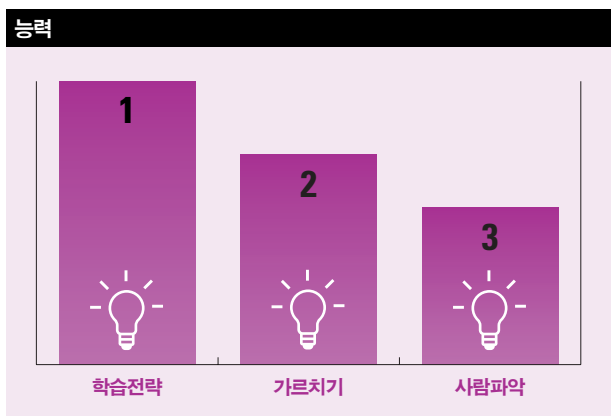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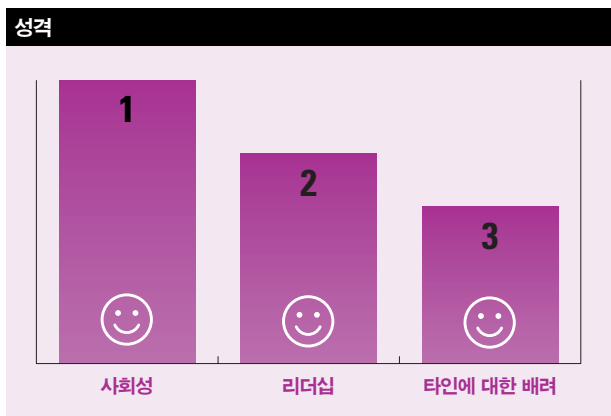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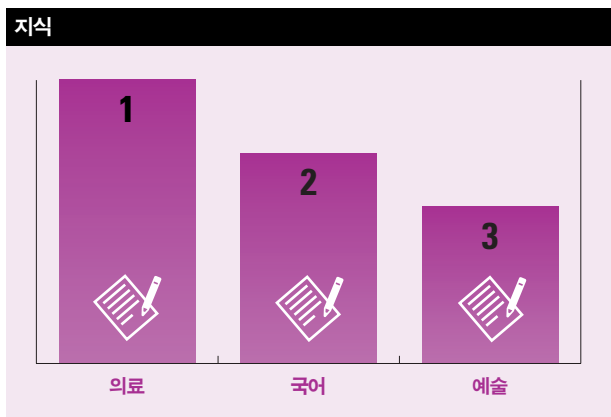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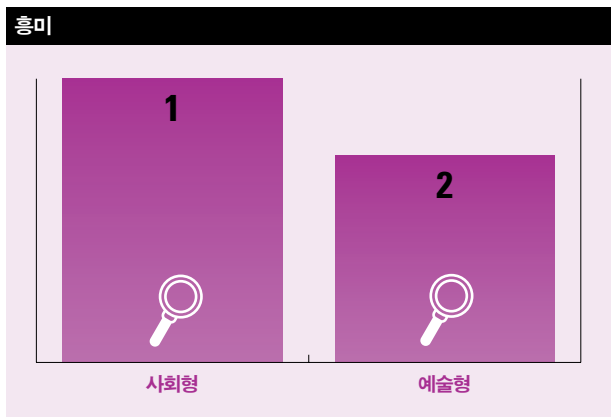
● 근무는 주로 실내에서 이루어진다. 하지만 영유아들의 신체 활동을 위해 보육시설 근처를 산책하거나 놀이터 등 가까운 야외로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기도 하며, 현장 학습 시 유원지 및 외부 장소에서의 활동도 이루어진다.

되는 길

● **교육 및 훈련** : 보육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대학이나 대학원 또는 보육교사관련 교육훈련시설 등에서 교육을 받아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보육교사 자격증은 1, 2, 3급으로 구분되는데 보육교사 3급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후 보육교사관련 교육훈련시설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또한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하면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대학에서 보육(학)과를 전공하게 되면 영유아들의 정서 및 신체적 발달에 따른 보육관련 사항을 배우며 실습을 함께 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영유아 보육에 대한 기초이론, 영유아 발달과 교육, 영유아 건강, 안전, 영양 등에 관한 교과목을 배우게 된다. 특히 국·공립 보육시설에 취업하려면 대학교를 졸업하여 학사학위를 취득하는 것이 유리하다.

보육교사

적성 및 흥미



● **관련 학과** : 전문대학 및 대학교의 보육학과, (아동)보육과, 가정보육과, 보육상담과, 사회복지보육과, 생활보육과, 아동복지보육과, 아동보육학습지도과, 아동미술보육전공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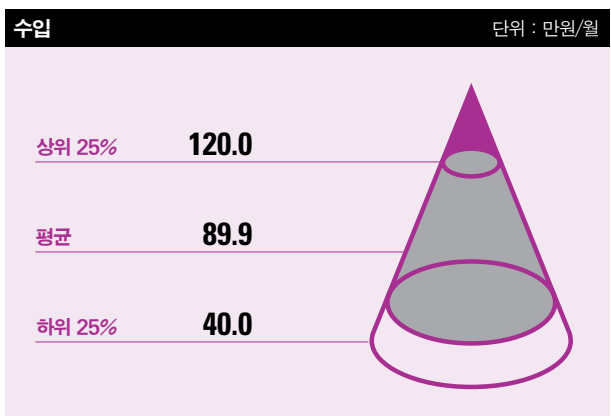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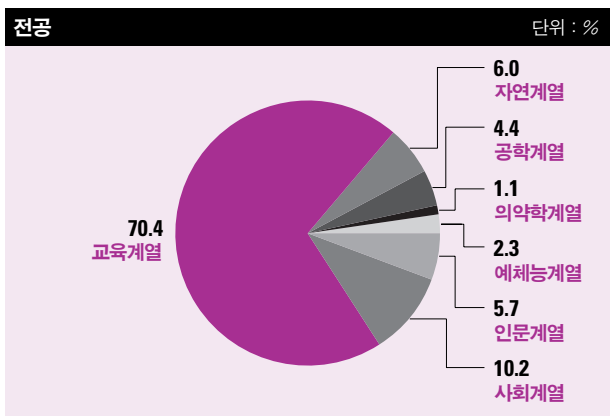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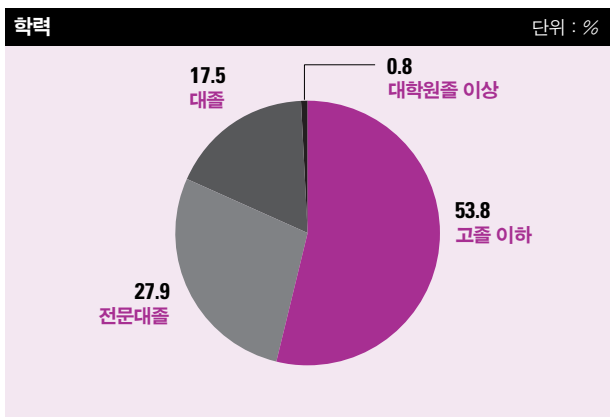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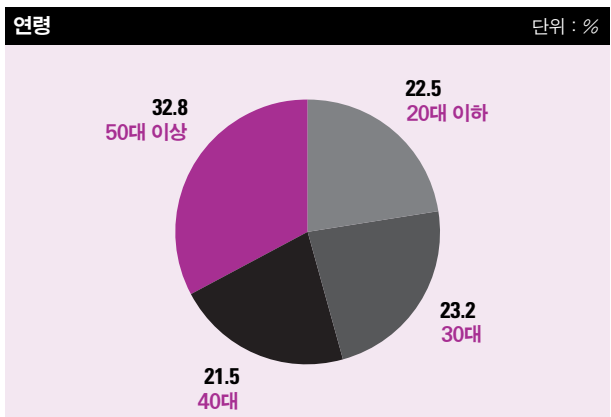
● **관련 자격 및 면허** : 보육교사 자격증은 1, 2, 3급으로 구분된다. 보육교사 1급 자격은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을 갖춘 사람 또는 2급 자격 취득 후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1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을 갖춘 사람이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으면 취득할 수 있다.

● **입직경로 및 진출분야** : 보육교사는 주로 국·공립보육시설, 법인보육시설 및 민간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 부모협동보육시설 등 우리가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어린이집과 놀이방 등의 보육시설에 취업한다. 보통 보육시설에서는 공개채용을 통해 보육교사를 채용한다. 주로 보육정보센터나 인터넷 등을 통해 채용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교육원 및 대학에서 추천해 주는 경우도 있다. 국·공립 보육시설의 경우 대학 졸업자 및 경력자를 많이 채용한다.

● **승진 및 경력개발** : 승급체계는 자격을 기준으로 3급 보육교사에서 2급 보육교사, 1급 보육교사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으며, 경력을 쌓아 시설장의 위치에 오를 수 있다. 하지만 통상 보육시설 내에서 승진은 경력에 따른 임금인상의 형태로 나타난다. 특히 경력을 쌓은 후 직접 보육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2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보육교사 2급 자격 취득 후 2년의 경력을 갖추면 가정 보육시설(보육정원 20인 미만)을, 그리고 보육교사 1급 자격 취득 후 2년의 경력을 갖추면 일반 보육시설(보육정원 300인 미만)을 운영할 수 있다. 보통 시설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유아교육, 사회복지나 아동복지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하는 경우가 많다.

종사자 수 : 176,184명(보육사를 포함한 수치임)

자료 :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 한국직업정보시스템



적성 및 흥미

● 무엇보다 아이들을 사랑하는 따뜻한 마음이 필요하며, 타인을 배려할 줄 하는 사려 깊은 마음이 요구된다. 또한 보육교사의 정서상태가 영유아에게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 적합하며, 성실함과 끈기가 요구된다. 아이들은 교사의 언어나 동작, 태도 등 모든 것을 순수하게 받아들여 따라하게 되므로 정확한 언어 구사 및 바른 행동을 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노래나 그림 등 여러 분야에 재능이 있으면 도움이 된다. 보육교사는 부모를 대신하여 아이들을 돌보는 사람만큼 책임감을 갖고 있어야 하며, 돌발적인 상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신속한 판단능력도 필요하다.

직업전망

● 향후 5년간 보육교사의 고용은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1991년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되고 보육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정부는 보육시설 확충 3개년 계획(1995~1997년)을 실시하였고 3년 동안 정부의 노력으로 보육시설이 급속히 증가하였다. 하지만 정부의 보육정책이 양적 확충에만 치중되었다는 문제가 지적되면서 2002년을 전후하여 보육시설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데 정부의 노력이 집중되고 있다. 이로 인해 과거처럼 보육시설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보육교사의 일자리 창출보다는 교사 대 아동 비율의 하향 조정에 따른 일자리 창출이 예상된다. 또 보육시설평가 인증제, 보육프로그램 개발 등으로 인해 보다 전문적인 자질을 갖춘 1급 보육교사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육시설 및 교사 현황		(단위 : 개소, 명)			
구분		2002	2003	2004	2005
시설 수		22,147	24,142	26,903	28,040
교사 수	(1급)	28,642	30,812	47,495	47,935
	(2급)	25,292	26,591	29,900	32,292
아동 수		800,991	858,345	930,252	972,391

출처 : 『교육통계연보』, 한국교육개발원, 각 연도

보육교사

● 또한 급속한 경제 성장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증가하면서 가정 내에서의 자녀양육이 점차 어려워지는 시대적 변화와 함께 해마다 보육이 필요한 아동 수는 늘어가고 있기 때문에 공공보육시설과 직장보육시설의 확충과 전문적인 자질을 갖춘 교사의 수급은 무엇보다 필요한 상황이다. 2005년 6월말 기준 전체 보육시설 28,040개소 중 국·공립 보육시설과 직장보육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은 각각 4.8%, 0.9%에 불과하며, 민간 보육시설은 48.7%, 가정놀이방 시설은 39.9%, 직장시설은 0.9%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보육시설 종사자의 경우 2004년 대비 1급 보육교사는 0.9%증가한 것에 비해 같은 기간 2급 보육교사는 8.0% 증가하여 전문 인력의 부족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 민간 보육시설의 경우 봉급 수준 및 근무여건이 열악한 경우가 많아 이·전직이 심한 편이며, 이로 인해 보육교사 자격을 갖추고 있으면 입직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다. 반면에 공공 보육시설의 경우 상대적으로 임금과 고용이 안정적이어서 신규인력의 입직경쟁은 매우 치열하다.

관련 정보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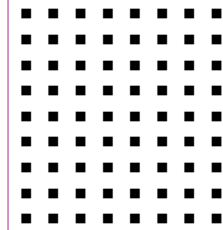
- 여성가족부 보육정책국
☎ 02)2100-6800 www.mogef.go.kr
- 중앙보육정보센터
☎ 02)701-0431 www.educare.or.kr

관련 직업

- 한국고용직업분류 코드
0721 보육교사 및 보육사

06

성직자



하는 일

● 성직자는 종교예식이나 의식을 주관하고, 집행하며, 교리의 해설 및 설교를 통해 신자들에게 정신적이고 도덕적인 지도를 하는 사람이다. 특히 경제적인 수입을 얻기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신념이나 본인 스스로의 깨달음을 얻기 위해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직업과 구별된다고 할 수 있다.

● 성직자는 종교에 따라 불교의 승려(스님), 천주교의 사제(신부님), 개신교의 목사, 원불교의 교무, 대종교의 전교 등이 포함된다. 이들은 교리전달자, 사회지도자, 상담자, 대리자, 선교자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등 주로 종교인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한다.

— 불교의 승려(스님)는 크게 예비승인 사미(남성)와 사미니(여성), 그리고 승려인 비구(남성)와 비구니(여성) 모두를 포함한다. 행자생활을 거쳐, 예비승, 승려의 단계에 오르게 되는 스님의 하는 일은 크게 '수행' 과 '포교' 로 나눌 수 있다. 불교의 진리와 깨달음을 얻기 위해 이른 새벽부터 예불로 하루를 시작하고, 경전 공부, 참회 및 좌선 등의 수행활동을 한다. 또한 일반 중생들에게 불교의 진리를 전파하기 위하여 불교 의식을 집행하고 경전 강의 등 다양한 포교활동을 한다.

— 천주교에는 크게 각 교구에 소속되어 본당의 사목을 맡는 사제인 교구사제와 수도원에 입회해서 수도자이면서 서품을 받아 고해성사나 미사 등을 집행하는 성직수사(수사신부)가 있다. 이들은 주로 천주교의 복음을 전하고 천주교 교회와 신자들에게 성직봉사를 수행한다. 천주교에서 주어지는 품계에는 주교, 신부, 부제가 있으며 이중 주교 및 신부가 사제에 포함되고, 부제는 보통 신부를 보좌하는 일을 한다. 신부는 주교로부터 파견 받아 그리

스도의 대리자로서 미사 성제를 거행하고, 주교의 협력자로서 복음 전파를 위해 일생동안 봉사한다. 평생 하느님과 예수님을 모시며 봉사할 것을 맹세한다는 서약을 하기 때문에 신부 및 수사 모두 결혼을 할 수 없다. 여성은 서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신부가 될 수 없다.

— 목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예배 및 봉사활동을 한다. 목사는 결혼이 자유로운 편으로 교단에 따라 여성목사의 안수를 허용하기도 하고 불허하기도 한다. 기독교계 학교에서 근무하는 경우 교목, 기도원에 근무하거나 환자들을 위해 봉사 및 예배를 드리는 경우 원목이라 불린다.

● 이외에 성직자들은 신자들의 청에 의해 결혼식이나 장례식을 집행하기도 하며, 신자들의 가정이나 병원 등을 방문하여 신앙심을 고취시키고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돕는 다양한 활동을 한다. 또한 사찰, 교회 및 성당 등을 운영 및 관리하고, 본당에서 행해지는 교육프로그램 및 각종 모임 등을 지도하고 감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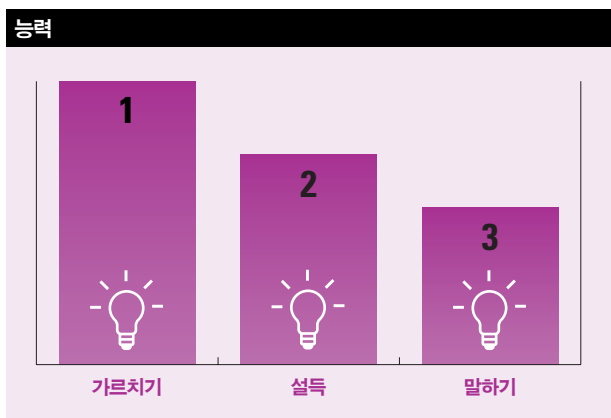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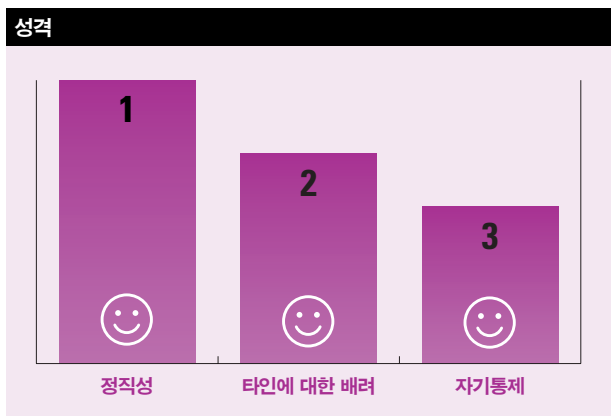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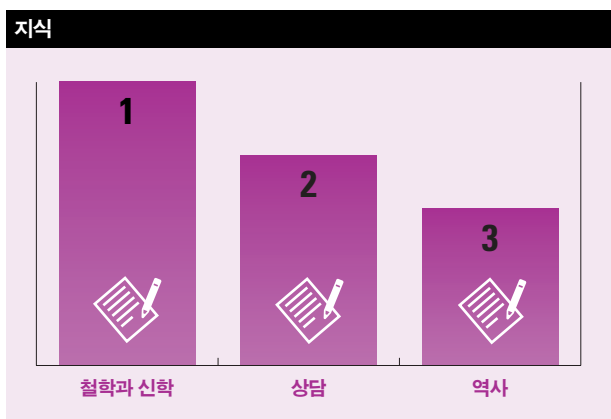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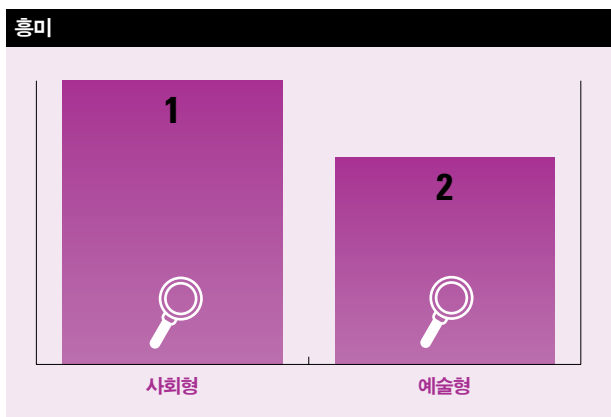
근무환경

● 승려가 수행자로 불리는 것처럼, 승려들의 생활은 매우 규칙적이고 엄격한 편이다. 보통 새벽 3~4시에 예불을 시작으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사시마지, 저녁예불, 참회 및 좌선에 이르기까지 정해진 일정에 의해 활동한다. 주로 사찰에서 생활하지만 포교활동이나 종교의식, 각종 사회활동 등을 위해 외부로 나가는 일도 많다. 사찰은 주로 산속 외진 곳에 많이 위치하였지만 도심에도 포교당들이 생기면서 도심지역에서 활동하는 승려들도 많다.

● 신부는 한 성당에서 사목해야 하는 임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한 지역에서만 종교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직자

적성 및 흥미



여러 지역을 옮기며 생활하게 된다. 목사는 교단으로부터 위임 혹은 임명받아 교회를 운영하는 경우 일정기간 혹은 교회에 따라 임의적으로 다른 교회로 옮기면서 생활하며 개인이 개척한 교회의 경우 교단이 정한 정년까지 그 교회에서 활동하게 된다.

되는 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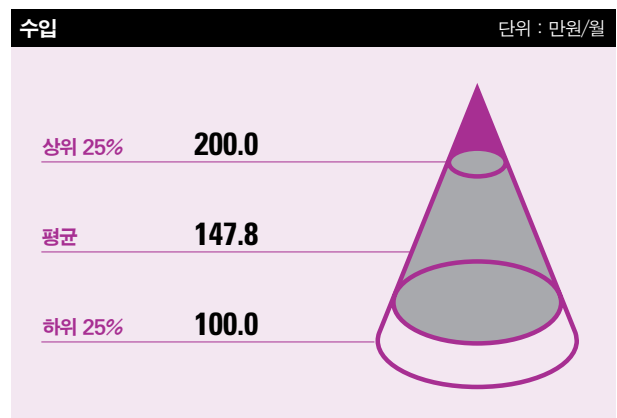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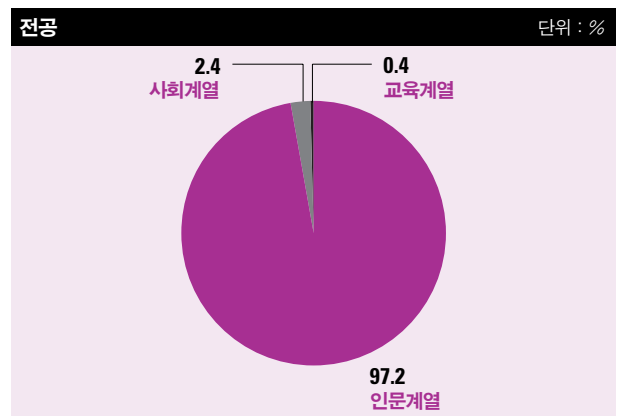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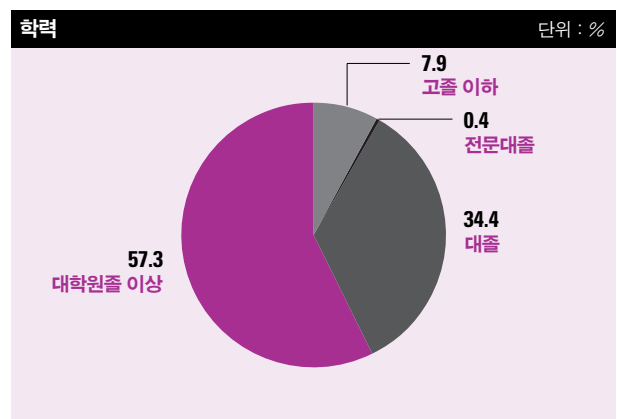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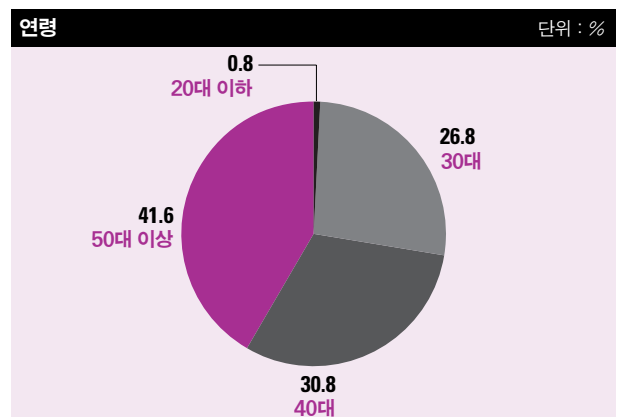
● **교육 및 훈련** : 성직자가 되는 길은 각 종교마다 또 종교 내부의 각 종파마다 차이가 있어 매우 다양하다. 따라서 여기서는 불교, 천주교, 개신교 등의 성직자를 중심으로 되는 길을 살펴보고자 한다.

— 일반적으로 승려가 되기 위해서는 고졸이상의 학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승려로서의 첫 출발은 출가하여 이루어지는 약 6개월간의 행자생활부터 시작하며 이때 절의 기본적인 예법과 의식을 배우고 간단한 경을 배우게 된다. 또한 현재의 출가가 일시적인 사회로부터 회피나 도피가 아닌 진정한 출가 수행자로서의 자신을 확인하는 시간이 된다. 그 후 은사를 정하고, 사미(니)계를 받으면 일종의 예비승려인 사미(남성), 사미니(여성)가 된다. 그 다음 승가대학을 비롯한 동국대학교 불교학부, 중앙승가대학교, 기본(초)선원 등의 교육기관에서 약 4년의 교육을 통해 구족계를 수지함으로써 종단의 정식 승려로서의 자격과 권리를 갖추게 된다. 특히 조계종의 경우 일종의 승려 승급체계라 할 수 있는 법계에 따라 승가고시를 치르고 있다. 이에 따라 사미(니)계를 받기 위해서는 승가고시 5급을, 구족계를 받기 위해서는 4급 승가고시에 합격해야 한다.

—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법적 연령이 25세 이상인 남자로서 세례 받은 지 3년이 지난 다음에 본당 신부의 지도를 받아 교구장의 추천으로 가톨릭대학의 신학과(대신학교)에 입학하여 7년간의 기숙사 생활을 통하여 철학과 신학, 기도와 영성생활을 수련해야 한다. 보통 각 교구에서 대신학교 입학 전에

종사자 수 : 509,122명(문화관광부의 『2005 문화정책백서』에서 집계된 수치임)

자료 :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 한국직업정보시스템



성직지망학생(예비신학생)을 미리 모집하여 교육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모임에 참석하여 자신의 성소를 확인해야 한다. 그 후 가톨릭대학교의 신학과에 지원할 수 있다. 신학과는 본과 4년, 연구과 2년, 부제반 1년 등 총 7년의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신학생도 군대를 가야 하는데, 군면제 대상자의 경우 교구에서 지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군복무기간동안 봉사활동을 하게 된다. 4학년이 되면 착복식을 하고 독서직을 받으며, 5학년이 되면 시종직, 6학년이 되면 부제품을 받게 되고, 7년의 총 과정을 끝마치면 주교로부터 서품을 받아 비로소 사제가 된다.

— 목사가 되는 방법은 각 교파마다 상이하다.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소속하고자 하는 교단이 인정하는 대학교에서 신학을 전공하고 신학대학원(2년)에 진학해 목회학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일정기간 전도사로 사역하고 이후 목사고시에 합격하는 것이다. 교파에 따라서 전도사나 강도사 시험을 응시해야 하기도 하고, 개척교회에서 단독목회를 해야 하기도 한다. 대학교에서 신학을 전공하지 않았더라도 신학대학원(3년)을 졸업하면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각 교파 및 교단에서 설치한 신학교나 신학원 등 신학교육기관에서 성직자를 양성하기도 한다. 신학원은 보통 2년 과정으로 되어 있다. 학부 또는 대학원 재학 시 전도사로 활동하는 사람이 많다.

● **관련 학과** : 전문대학 및 대학교의 불교학과, 신학과, 기독교학과, 목회학과, 교리교육학과, 선교학과 등이 있다.

● **입직경로 및 진출분야** : 승려로서의 정식자격을 갖추게 되면 평소 자신이 원하는 사찰이나 자신의 은사스님이 있는 사찰에 머물며 생활한다. 사제의 경우 서품 후 보좌신부가 되면 본당으로 발령을 받아 보통 2년간의 소임을 하고 교구에서 정해진 본당으로 다시 발령받게 된다. 목사의 경우 안수를 받으면 해당 교단의 교회에서 대부분 활동하게 되며, 학교의 교목이나 기도원의 원목이 되기도 한다. 선교에 뜻이 있다면 선교사가 되어 해외 선교활동을 하기도 하며, 군목이 되어 군대 교회에서 생활할 수도 있다. 이외에도

성직자

성직자는 각 종교와 관련된 단체, 언론기관, 교육기관 등으로 진출하기도 한다.

- **승진 및 경력개발** : 승려의 승급체계는 '법계'라고 불리우는데 비구(니)가 된 후 일정 수행기간과 각 단계별 승가고시에 합격하게 되면 건덕(계덕), 중덕(종덕), 대덕(혜덕), 종덕(현덕)의 위치에 오를 수 있다. 그 후 최고 지위라 할 수 있는 종사(명덕), 대종사(명사)의 위치에 오를 수 있는데, 보통 대종사가 되기까지는 총 40년 이상의 수행기간을 거쳐야 한다. 천주교의 품계는 주교, 신부, 부제가 있으며, 신학교 6학년 때 부제서품을 받고 1년 후 사제서품을 받으면 신부가 된다. 그 후 본당으로 발령이 나면 보좌신부가 되고 경력을 쌓게 되면 주임신부, 지구장신부, 지목구장신부가 될 수 있다. 그 후 주교, 대주교 그리고 추기경의 지위까지 이르게 된다. 목사는 교파에 따라 다르지만 목사 안수 후 교회를 개척하거나 부목사로 사역하기도 한다. 경력을 쌓은 후 한 교회의 담임목사로 근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적성 및 흥미

- 교리를 해석하고 전달하기 위해서 종교의 기능, 철학 등에 대한 관심 및 지식이 있어야 하며, 특히 관련 종교의 경전을 해석하고 공부하기 위해 외국어에 대한 소질도 필요하다. 또한 교리의 전파나 포교활동 등을 위한 원활한 대인관계능력, 의사소통능력, 상담 능력 등이 요구된다. 성직자는 수많은 종교가 있고 그 종교들을 믿는 다양한 사람들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종교를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하며, 항상 남을 위해 희생하고 봉사할 수 있어야 한다.

직업전망

- 향후 5년간 성직자의 고용은 현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 성직자는 개인적인 믿음과 소명의식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의 일자리 전망을 하는 것은 여러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성직자의 전망은 각 종교 단체 현황이나 종사자 수를 파악하는 것으로 대체하고자 한다.

- 문화관광부의 『2005 문화정책백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종교는 총 324개 교단이 있으며, 사찰, 교회, 성당 등 총 교당 수는 91,833개소이다. 또한 여기에서 종사하는 성직자 수는 509,112명에 이른다. 이는 국민의 절반이상이 종교인인 우리의 종교 지향적인 생활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고대사회 때부터 자연숭배, 무속신앙과 제천행사 등과 같은 종교의식을 삶의 일부로 여겨왔다. 고도의 성장으로 물질적인 삶의 풍요를 누리게 되었지만 그 안에서 소외당하고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해 종교의 힘을 빌려 안식을 찾고자 하는 사람은 지속적인 것으로 보여 종교와 성직자의 역할은 더욱 커져갈 것으로 예상된다.

-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개신교 교당 수(60,785개소)와 성직자 수(124,310명)가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불교 교당 수(22,072개소)와 성직자 수(41,362명), 천주교 교당 수(2,385개소)와 성직자 수(13,704명)로 나타났다.

종교별 교세 현황		(단위 : 개, 개소, 명)	
구분	단체(교단)	교당 수	교직자(성직자) 수
불교	105	22,072	41,362
개신교	170	60,785	124,310
천주교	1	2,385	13,704
유교	1	730	31,833
천도교	1	212	5,670
원불교	1	548	11,190
대종교	1	109	358
그밖의 종교	44	4,992	280,685
계	324	91,833	509,112

출처 : 『2005 문화정책백서』, 문화관광부, 2006

- 종교의 구분 없이 성직자가 되는 과정은 매우 엄격하여 실제적으로 성직자가 되고자 관련 과정을 밟는 사람도 중도에 그만두는 경우가 많다. 승려의 경우 어려운 사회적 현실을 도피하기 위하여 출가를 하였다가 수련생활을 참치

못하고 사회로 돌아가는 사람이 많다. 또한 천주교의 사제도 신학교에 입학하더라도 상당히 엄격한 과정을 거치면서 서품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 인터넷의 발달로 점차 선교 및 포교를 온라인상에서 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성직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컴퓨터에 대한 지식과 능력을 갖추어 놓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천주교나 개신교를 중심으로 해외 선교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최근 국내 불교의 해외 선교활동 또한 이루어지고 있어 향후 성직자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외국어 실력을 갖추어 놓는 것이 필요하다.

관련 정보처

- 문화관광부 중무실
☎ 02)3704-9326 www.mct.go.kr
- 대한불교 조계종
☎ 02)2011-1700 www.buddhism.or.kr
- 한국천주교주교회의
☎ 02)460-7500 www.cbck.or.kr
- 한국기독교총연합회
☎ 02)741-2782 www.cck.or.kr

관련 직업

- 한국고용직업분류 코드
0731 성직자